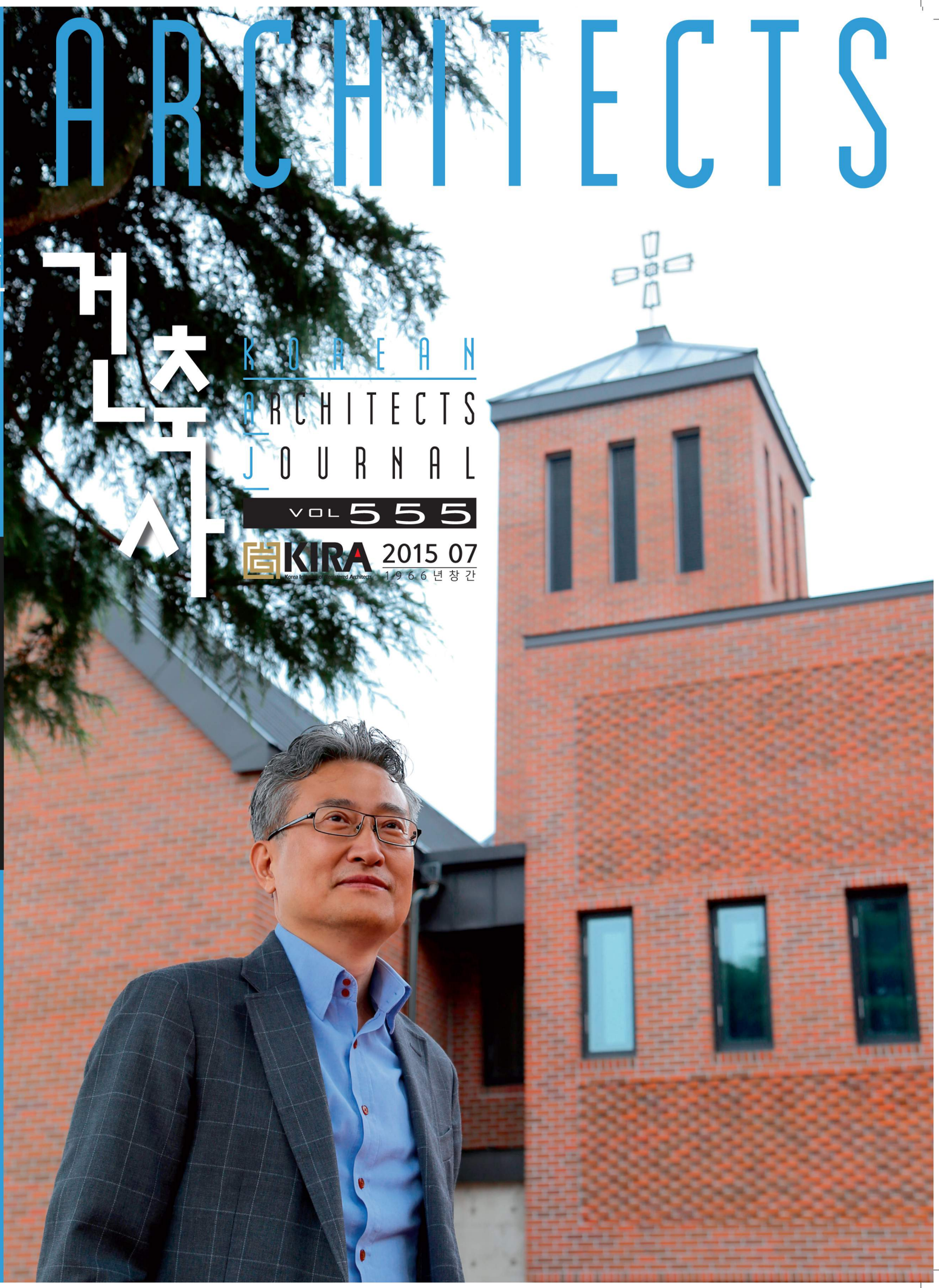
ARCHITECTS

건축사

KOREAN
ARCHITECTS
JOURNAL

VOL 555
KIRA 2015 07
1966년 창간



건축사 July 2015 KOREAN ARCHITECTS VOL 555

글. 이영희_ Lee, Young-hee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나를 움직인 시골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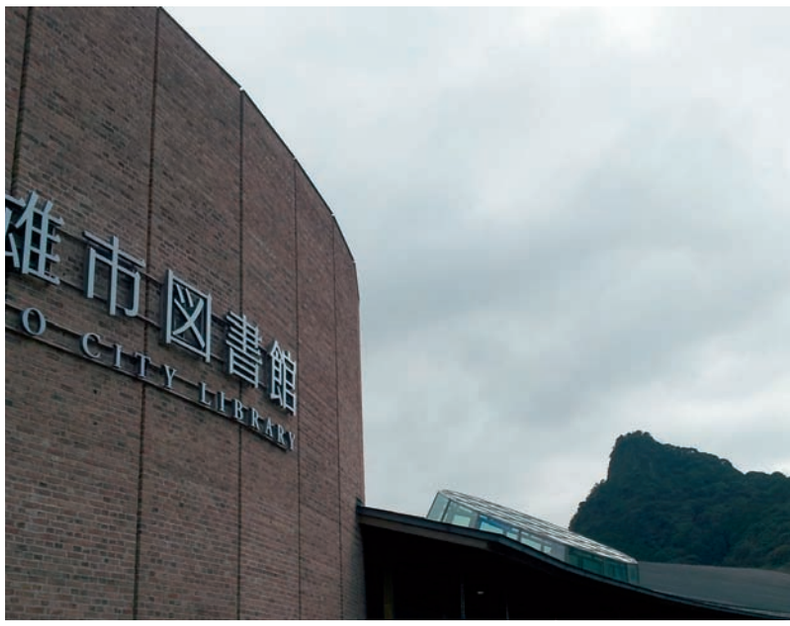
Rural library that moved me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건축담당 기자로 2년 여간 일하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 멋들어지게 지어진 랜드마크, 사는 이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작지만 알찬 집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며 이런 문장을 수없이 쓴 것 같다. '건축이 공동체를 바꾼다', 혹은 '좋은 집에 사니 인생이 달라졌어요'같은. 대부분의 건축기사에 의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그리 느낀 적이 있었던가. 당시 고시원보다 조금 큰 평수의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나는, 건축사와 건축주가 머리를 맞대고 지은 예쁜 집을 취재하고 돌아온 날이면 조금쯤 우울해졌다. 하지만 곧 정신승리에 돌입한다. 집이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예술품 같은 건축물을 감상하는 걸 좋아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도쿄 아오야마 명품 거리의 프라다 빌딩 같은. 하지만 정작 건축이 가진 힘을 제대로 실감한 것은 일본 시골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때는 지난 봄, 뒤늦은 겨울휴가로 규슈 사가현에 있는 우레시노 온천을 찾았다. 우레시노로 가려면 다케오라는 소도시를 거쳐야 하는데, 버스시간이 잘 맞지 않아 서너 시간을 때워야 했다. 다케오는 지나치게 조용한 마을이었다. 검색을 해보니 인구가 5만이라던데, 다들 어디 있는지 길거리에서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뭐야, 재미없는 동네군. 투덜거리며 걷고 있다가 발견했다. 저 멀리에서 도시녀를 부르는 희망의 메시지, '스타벅스'의 표지판을. 진한 커피가 갈급해 서둘러 걷는데, 낮은 2층짜리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다.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

대중문화, 건축, 문화재 담당을 거쳐 현재는 출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 담당기자 시절에 신문 지면에 '젊은 건축사들과 함께 하는 유쾌한 집짓기' 시리즈를 연재했다. 지은 책으로 에세이집 '어쩌다 어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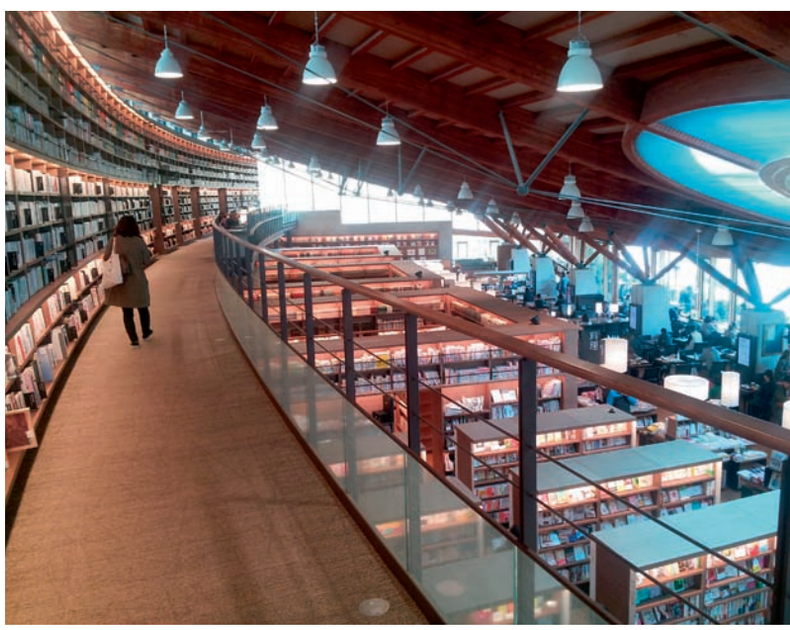


들이 보였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주차장엔 차가 가득했다. 오, 여긴 뭐지? 건물 앞에 '다케오시립도서관'이라 적혀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간질이는 커피향. 입구 오른편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옆으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주르륵 놓여 있다. 이 곳 1층은 일본 음반 렌털업체인 쓰타야(TSUTAYA)가 운영하는 책방 겸 CD&DVD 대여점이다. 사람들은 서점에 진열된 책을 가져와 테이블에 쌓아놓고 읽는다. "도서관은 어디냐"고 직원에게 물으니 "여기가 도서관"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2층으로 올라가니 도서관 장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고. 드문드문 놓인 테이블에서 고등학생들이 책을 펼쳐 놓은 채 수다를 떨고 있다. 서점과 도서관은 경계가 없고, 서점 계산대에서 도서관 책의 대여와 반납도 한다. 도서관이자 서점이고, 열람실이면서 카페다.

이런 도서관이 가능했던 것은 시의 과감한 결정 덕분이었다고 한다. 2013년부터 민간업체 쓰타야에 도서관의 운영을 맡겼고, 쓰타야는 특유의 인테리어 감각을 발휘해 공간을 확 바꿨다. 답답한 도서관 느낌은 사라지고, 높은 천장에 감각적인 가구로 꾸며진 공간이 탄생했다.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낮에는 동네 주부나 노인들이, 저녁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르는 공간이 됐다. 2014년 도서관 이용자가 누적 1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60만 명이 다케오 시민이었다. 인구가 5만이니 어림 잡아도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들렀다는 이야기.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었다.

이 곳을 찾았을 때 느낀 위안과 감동을 공간미학 등으로 풀어낼 깜냥이 못 된다.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려던 계획을 변경해 오후 내내 도서관 안팎을 서성이다 어두워져서야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단 이야기만 해 둔다. 어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삶의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 곳에서 실감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 이 공간의 비밀을 필자에게 알려주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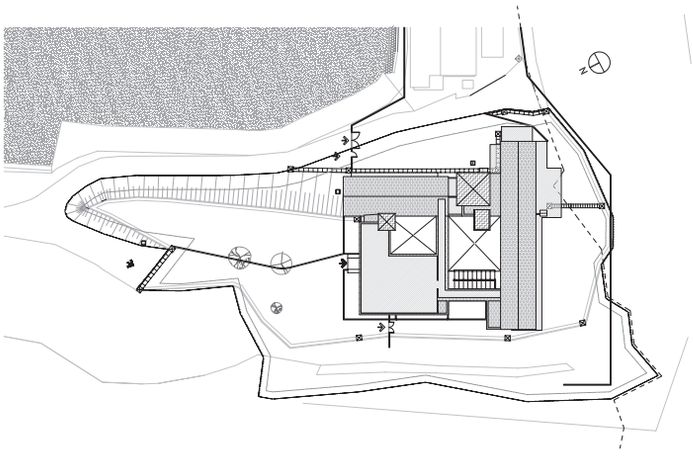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Mother of Carmel Monastery

설계자 | **이한종**_KIRA
㈜스튜디오이일공오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이일공오 건축사 대표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송도애니파크(2013 IFEZ 건축상 은상), 거제씨월드, 사당동빌딩, BRC연구소, 인천논현 H빌딩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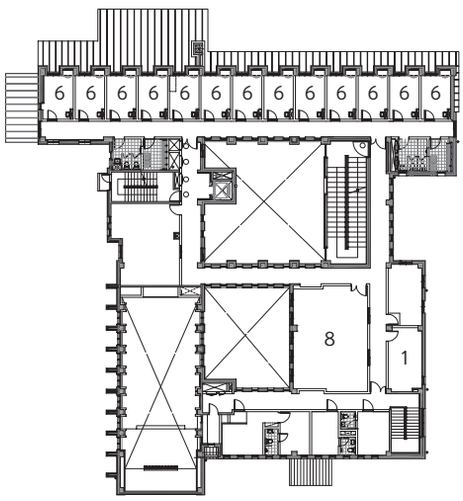
건축주 |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감리자 | ㈜스튜디오이일공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에이스건설산업

대지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204외 4필지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95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68.8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630.8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1.56%
용적률(Floor Area Ratio) | 43.4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점토벽돌, 징크
- 내부 :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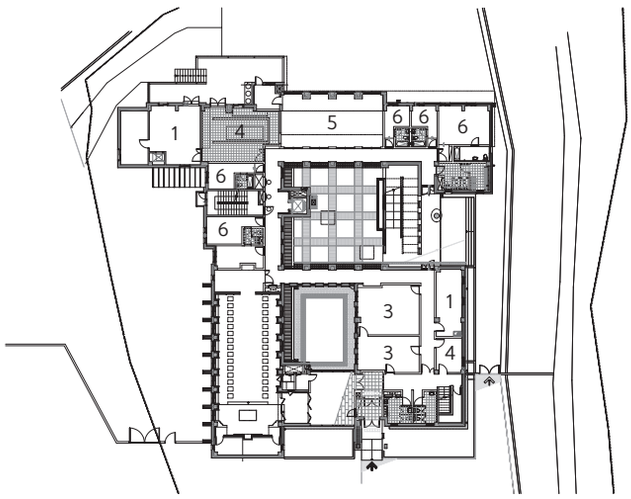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2 ~ 2013.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2014. 12
사진(Photographer) | 이한종(Lee, Han-jong)

- 설계팀 : 김승희, 노경록, 성철휘, 최은정, 백두만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성우설계이앤씨
  - 전기분야 : (주)자영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주)성우설계이앤씨 / (주)자영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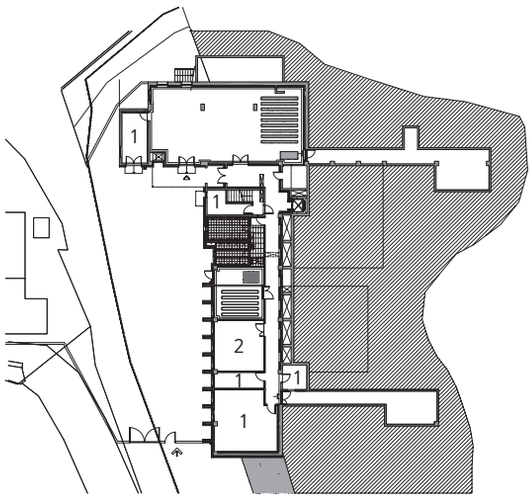
Client : Mother of Carmel Monastery
Architect : Lee, Han-jong
Project Team : Kim, Seung-hee / Noh, Kyung-rok / Sung, Chul-hui
Choi, Eun-jung / Paik, Doo-man
Location : 1204, Gyenae-ri, Chilseo-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ES & Partners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Sungwoo ENC
Electrical Engineer : Jayeong Engineering
Fire Engineer : Sungwoo ENC / Jayeong Engineering
Finishing
Exterier : Fireclay Brick, Zinc
Interior : Fireclay Brick, Exposed Concret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 _ 창고
2 _ 음악실/운동실
3 _ 연회실
4 _ 주방
5 _ 식당
6 _ 수방
7 _ 사무실
8 _ 강의실

중정내 성모마리아상

고행

가르멜의 모후 수도원은 봉쇄수도원으로 25여분의 수녀님들이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수녀님들은 오직 기도를 위해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다. 이 봉쇄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원 주변의 넓은 장원은 논, 밭, 과수원과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각종 곡물들을 수확하여 거의 모든 음식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기도의 시간이외에 모든 시간들이 농사를 위한 힘든 노동의 시간들이다.

봉쇄구역내에서의 생활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도와 노동 그리고 묵상의 수도원 생활은 매우 힘들고 단조로운 일상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수녀님들의 대화는 거의 없다. 기도와 노동의 시간이 반복될 뿐이다. 수녀님들은 힘든 고행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수도원은 기도와 생활공간이 주가 되는 본동과 농사를 위한 창고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이 창고동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창고동은 다양한 기능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물창고, 방앗간, 목공실, 농기구 보관창고, 땔감보관창고, 온돌방과 자동차수리고 그리고 저온냉장고, 탈곡, 제빵, 세척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침묵

수도원 본동은 오직 기도를 위한 침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원은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성당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공간, 수도생활을 위한 생활공간, 극히 제한적인 접견공간들이다. 접견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은 수녀님들과 외부인이 엄격히 구분되도록 봉쇄되어있다. 서로 대화하지 못하며, 또한 가능한 서로 보이지 않게 시야가 차단되어 있고, 봉쇄구역내로 통하는 모든 동선 또한 단절되어 있다.

이 엄격한 공간들을 구획하기 위해 두 개의 중정을 두었다. 주출입구 쪽에 있는 크기가 작은 중정은 기도의 공간과 접견공간을 구획하고, 크기가 조금 더 큰 중정은 봉쇄구역내에 있어 다른 영역과 구별하게 되어 수녀님들의 침실인 수방과 식당이 중심이 된 생활공간 속에서 수녀님들만의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다.

봉쇄된 수도원이지만 수도원내부에서는 수녀님들이 가능한 공간들을 자유롭게 배회할 수 있게 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진 복도는 혼자만의 묵상을 위한 동선이기도 하다. 두개의 중정은 “ㅁ” 자 형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4면의 복도는 각 변마다 다른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다. 중정 또한 4면이 다른 입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복도에서 보이는 창밖의 모습 또한 다르다. 이는 침묵의 공간에서 수녀님들이 느낄 수 있는 조금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1 _ 성모의 뜰 외부계단
2 _ 성모의 뜰
3 _ 2층 연결복도
4 _ 내부성당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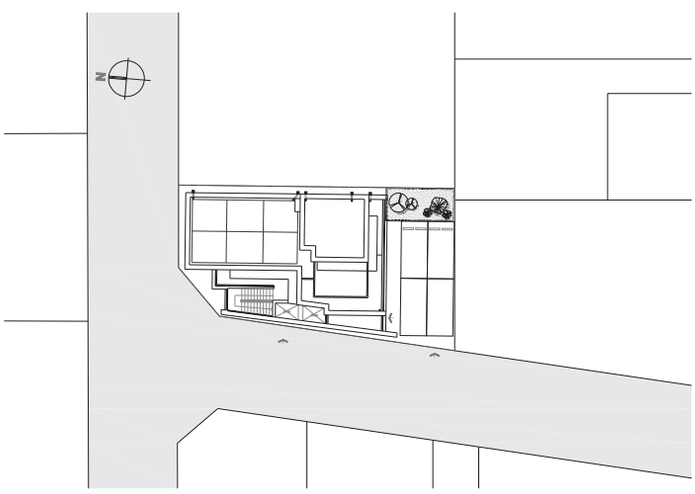
3

인터텍스빌딩

INTERTEX Building

설계자 | **동원서**_KIRA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한터겐 건축사사무소, ㈜현대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2013년 디에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두산동 호연빌딩, 사동 단독주택,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 문화예술회관 예련관 리모델링, 대구웨딩사옥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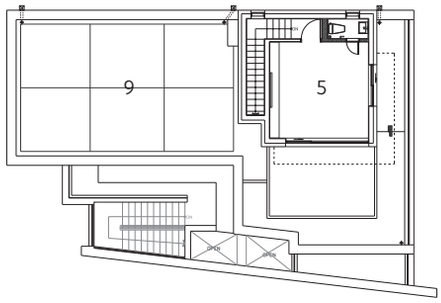
건축주 | (주)인터텍스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함지
시공사 | (주)인터텍스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11길 10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99.5㎡
건축면적(Building Area) | 172.863㎡
연면적(Gross Floor Area) | 493.20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717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4.6755%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STO 외단열 토탈 마감
- 내부 : 친환경 페인트, 투명우레탄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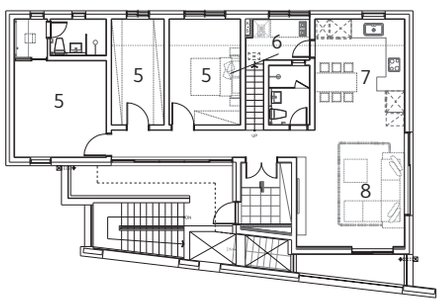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5 ~ 2014.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8 ~ 2015. 01
사진(Photographer) | 정우철(Jung, Woo-chul)

- 설계팀 : 김장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구조기술사연합법인
  - 기계설비분야 : 서진설비설계사무소
  - 전기분야 : 우진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우진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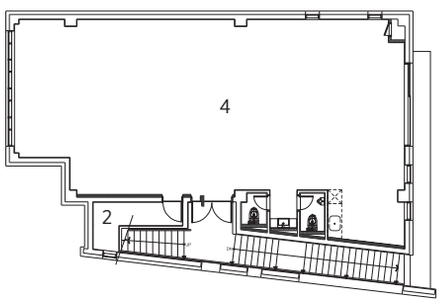
Client : INTERTEX Co.,Ltd
Architect : Dong, Won-soe
Project Team : Kim, Jang-han
Location : 10, Muhak-ro 11-gil, Suseong-gu, Daegu,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P.E.A.S Co.,Ltd
HVAC Engineer : Sujin Equipment design Office
Electrical Engineer : Woojin Engineering
Fire Engineer : Woojin Engineering
Finishing
Exterier : STO Exterior Insulation&Finish System
In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Urethane Co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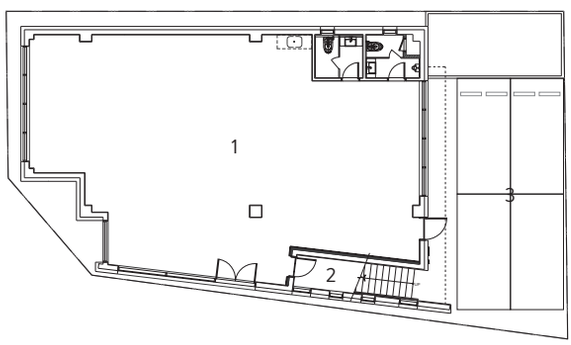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_ 소매점
2 _ 창고
3 _ 주차장
4 _ 사무소
5 _ 방
6 _ 다용도실
7 _ 주방
8 _ 거실
9 _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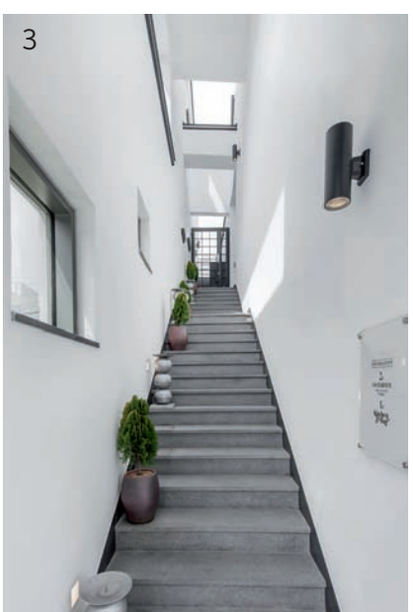
1 _ 서측 입면 2 _ 남측 출입구 3 _ 입구 계단

건축주로부터 3층 규모의 주택과 임대상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뢰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8M도로가 서측과 북측에 면한 계획부지는 거리 환경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기대감과, 주택부분의 독립성확보 및 서측 태양광 조절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였다.

계획을 구체화 하는 주요단서로서, 건축주의 생각을 시작으로 주변건물의 크기 및 용도, 외부마감재료 등을 검토 하였다. 건물의 크기는 상동408-3 인터텍스빌딩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2~3층 규모이며, 용도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상황이었다. 인접건물의 외벽은 브라운 계열의 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계획하는 건물은 가볍고 밝은 마감재료를 적용하여 거리의 변화와 활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주거부분의 독립성확보는 도로와 사용공간 사이에 중간적 영역인 계단을 두어, 심리적 거리 확보와, 시각적 교차부분을 최대한 회피해보기로 했다. 가벽을 적용해 외부의 시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본 건물과 육안거리에 있는 건물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벽의 다양한 개구부는 입면의 다양성과 함께, 1층에서부터 3층 주택으로 이어지는 외부계단에서 사용자가 이동함에 따른 액자화된 도시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측태양광이 거실로 유입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계단공간은 사용자에게 건축화된 빛을 경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빛에 의한 입면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건물의 외부마감은 위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질감과 색을 고려한, STO마감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단순화 된 이미지에 빛이 그리는 그림을 담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그 빛이 그리는 공간이 사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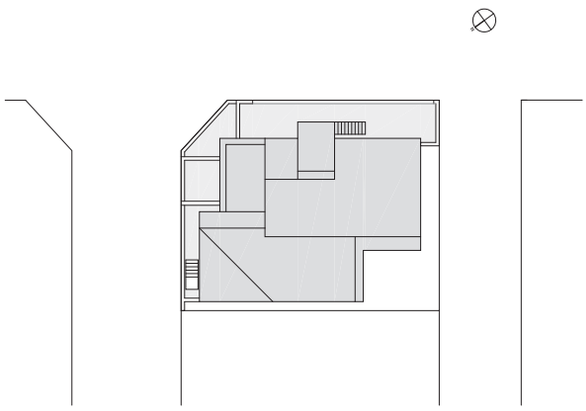
1 _ 2층 사무소
2 _ 3층 거실
3 _ 3층 주방
4 _ 3층 주방에서 본 거실

동탄 캥거루 패시브하우스

Dongtan Kangaroo Passive House

설계자 | **윤태권**_KIRA
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로 주요작품으로는 양평패시브하우스, 오포발트하우스, 양지발트하우스 등이 있다.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양평 패시브하우스)을 수상했으며,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스튜디오 외래교수(2009~2013)를 역임한 바 있다.



배치도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30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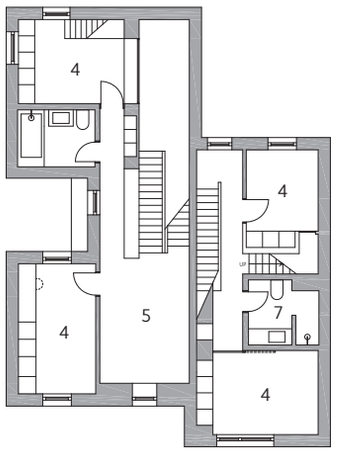
건축주 | 송인광
감리자 | 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하오스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금반1길 20-2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84.9㎡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1.98㎡
연면적(Gross Floor Area) | 340.5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83%
용적률(Floor Area Ratio) | 97.9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시스템
- 내부 : 비닐페인트, 타일, 에폭시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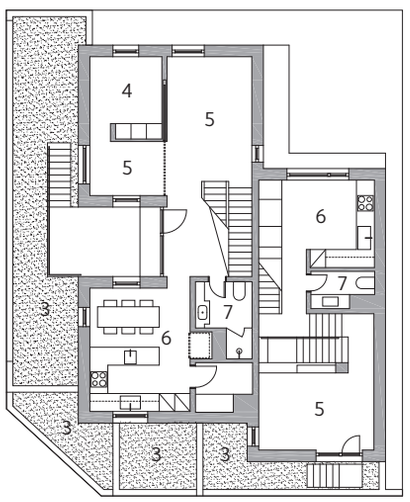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1 ~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 ~ 2013. 12

- 설계팀 : 서세희, 김혜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김앤이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성MEC
  - 전기분야 : 대신MEC

Client : Song, In-kwang
Architect : Yun, Tae-kwon
Project Team : Seo, Se-hee / Kim, Hye-soo
Location : 20-2, Geumban 1-gil,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Kim&Lee Structural Consultant
HVAC Engineer : Ju Sung MEC
Electrical Engineer : Hangil Engneering Co.Ltd
Finishing
Exterier : Exterior Insulation&Finish System
Interior : Vinyl Paint, Tile, Epoxy Co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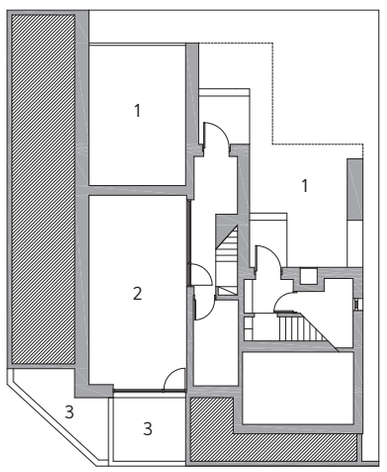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_ 주차장
2 _ 스튜디오
3 _ 정원
4 _ 침실
5 _ 거실
6 _ 주방
7 _ 화장실



1층 평면도

건축의 시작

부지는 동탄 신도시 내에 조성된 타운하우스 블록 안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블럭형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곳이다. 하나의 블록은 12필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서 전형적인 신도시 내의 주택단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건축주는 오랜 아파트 생활을 끝내고 가족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본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을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를 통해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고 싶어 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임대 주택의 새로운 가능성

대부분의 임대를 목적으로 구축된 공간들은 임대의 효율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질 높은 공간과 에너지 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드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다른 곳들보다 더 좋은 임대료와 장기간 최소의 유지 관리비가 든다. 이것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패시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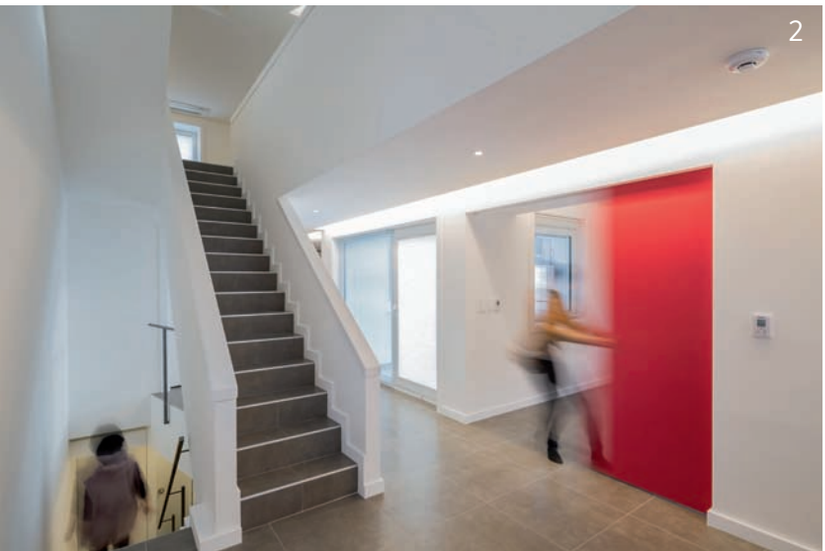
이 주택은 크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면적비는 6:4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마당과 주차장 그리고 개별적인 출입구를 두어 상호간에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주택의 열회수 환기장치는 건축주가 거주하는 쪽에 한 대를 설치하여 두 집이 같이 쓰도록 만들어졌다. 그럼으로써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면서 내부 거주 환경은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치 캥거루 어미가 새끼를 아주 안락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주머니에 새끼를 기르듯이 단순한 면적의 배분만이 아닌 에너지를 나누고 안락함을 나누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집을 캥거루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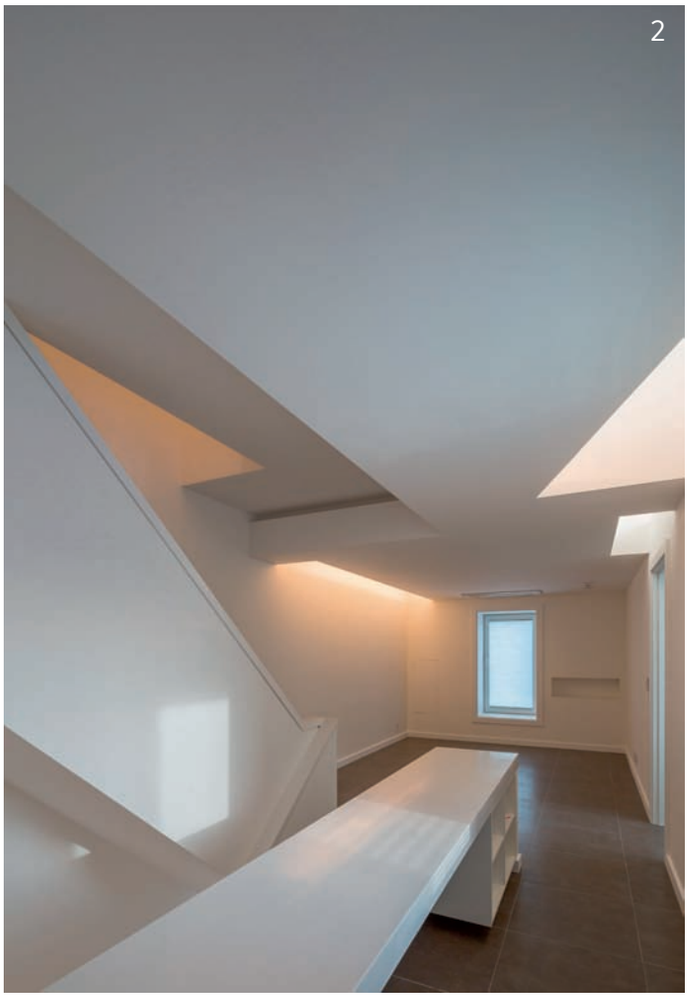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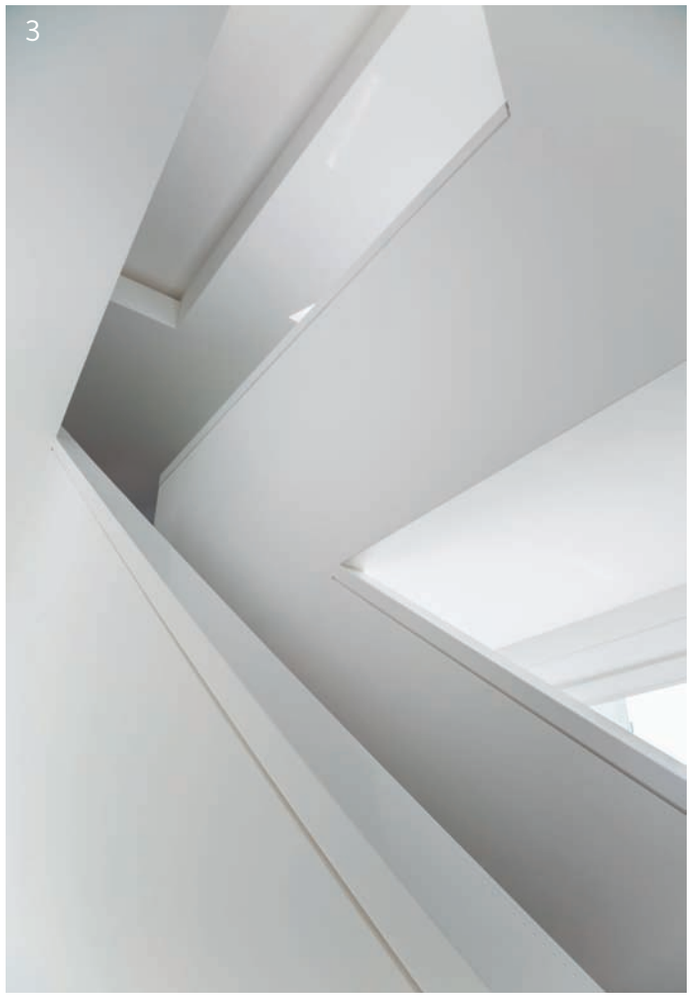
훗날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독립하여 나갈 경우 건축주는 임대동인 아가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엄마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를 통해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적은 것을 나누어 큰 것을 얻어내는 지혜에서 이 주택은 출발하였다.

1 _ 주출입구 2 _ 거실에서 본 계단 3 _ 거실



1


2


3

4

1~3 _ 내부 공간 4 _ 침실 5 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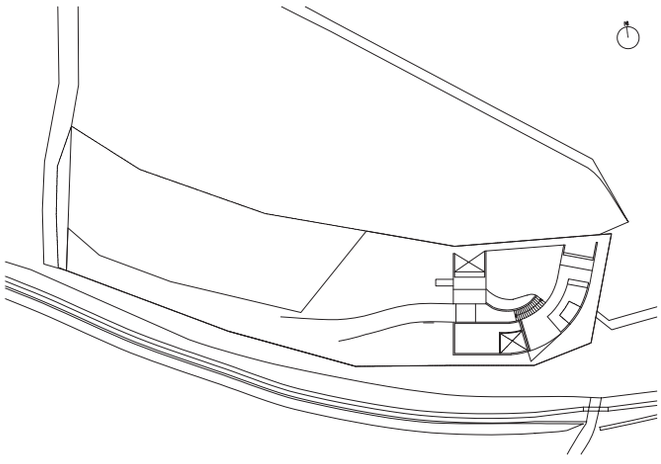
5

횡성 예버덩 문학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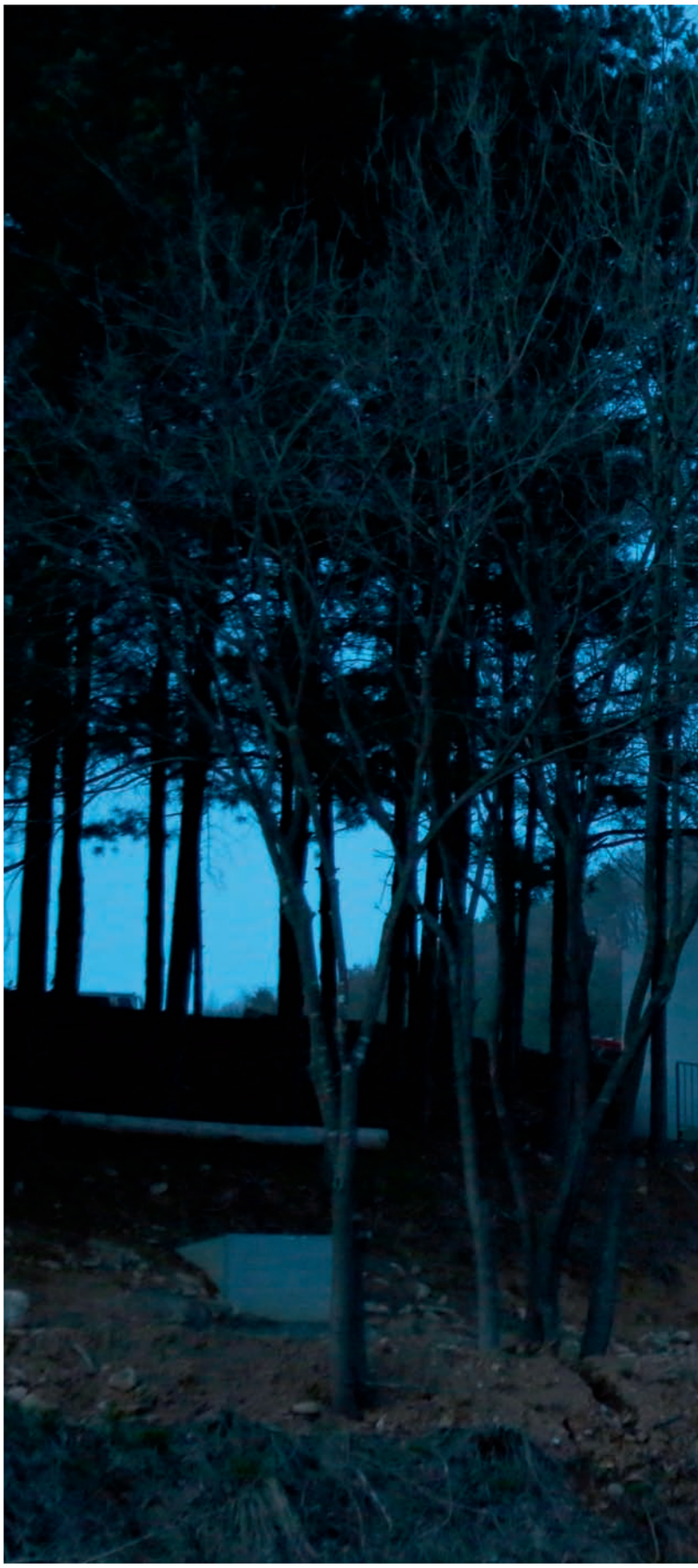
Hoengseong Yeburdung Literature House

설계자 | **강현석**_KIRA
이응 건축사사무소

이손건축에서 작업하다 2000년부터 대학로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2014년 예버덩문학의집과 이화동의 오래된 집을 직접 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엔 옥인동과 정릉의 주택을 리노베이션 중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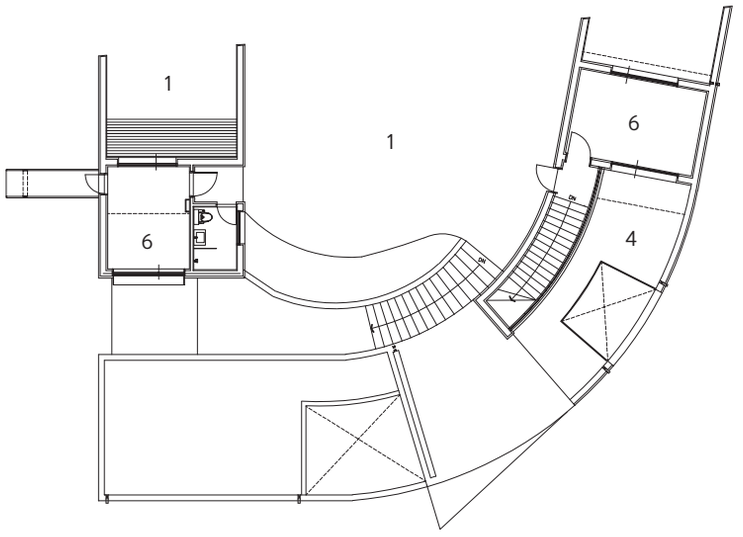
건축주 | 조 명 (시인)
감리자 | 이응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조 명 (시인)

대지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417
주요용도 | 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98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3.3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3.0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4.5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5.51%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시스템 / 스터코
- 내부 : 석고보드/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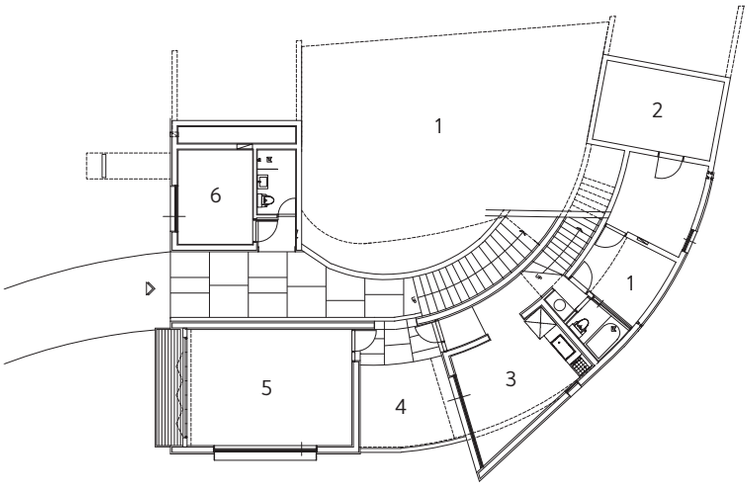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4 ~ 2013. 1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4 ~ 2014. 11
사진(Photographer) | 강현석(Kang, Hyun-suk)

· 설계팀 : 김지영

Client : Cho, Myung
Architect : Kang, Hyun-suk
Project Team : Kim, Ji-young
Location : 417, Gangnim-ri, Hoengseong, Gangwon-do, Korea
Structure : RC
Finishing
Exterier : Exterior Insulation&Finish System
Interior : Natural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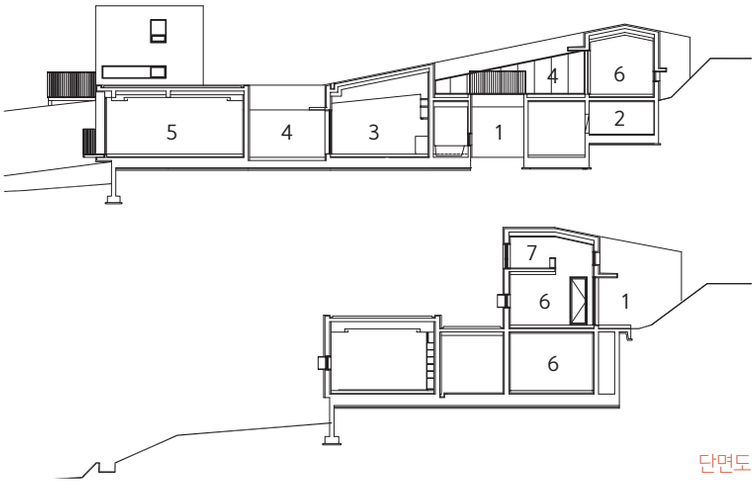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_마당 2_창고 3_주방 식당 4_테라스 5_도서실 6_게스트룸 7_다락



단면도

– 한 시인이 꿈처럼 좋아하던 예버덩이 있었고, 한 건축사가 해토의 초봄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퇴고에 퇴고를 거듭하여 한 편의 시를 짓듯, <예버덩문학의집>을 아름답게 지어주어, 작가들이 몰입하여 문학작품을 낳고 독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준 강현석 건축사의 공로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상기의 글은 2015년 7월 4일 <**예버덩문학의집**> 개원식 때 필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감사패의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건축주는 주천강변의 대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아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자신의 작업 공간을 만들 꿈을 꾸어 오다가 생각을 확대하여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시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과 함께하는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지는 법흥사, 구룡사, 상원사를 선으로 연결하여 생기는 삼각형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 주변의 지형은 주천강이 대지를 감싸고 흐르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마치 새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으로 새의 부리에 해당 되는 부분에 본 건물이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새 모양의 지형에 건물을 앉히는 일은 건축사의 의지보다는 자연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건물 배치는 10여 년 전 건축주가 정자를 짓기 위해 경사지였던 대지의 일부를 돋구어서 마당을 만들어 놓은 곳을 중심축으로 하여 멀게는 법흥사와 구룡사를 연결하며 가깝게는 주천강의 흐름과 대지의 경사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긴 호를 그리는 제1 매스를 배치하고, 상원사를 바라보는 축에 2층의 직사각형 매스를 배치하여 두 매스의 안쪽에 안마당을 만들고, 제1 매스의 지붕과 안마당을 연결하여 생기는 여러 층위의 시각과 공간들을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 평면은 경사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 실에 부속된 다양한 실내 마당을 계획하여 모든 실들이 지면과 바로 이어져 언제든 자연과 직접적으로 조응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각 실의 창들은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사용자들의 시선이 내부로 모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창작하는 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연으로의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마당에서 1층 지붕으로 연결 되는 부분은 미완으로 남은 상태로 개원되었으나 추후에 실현되리라 생각된다.

* 주: "예버덩"은 강림의 옛 지명으로 "古平"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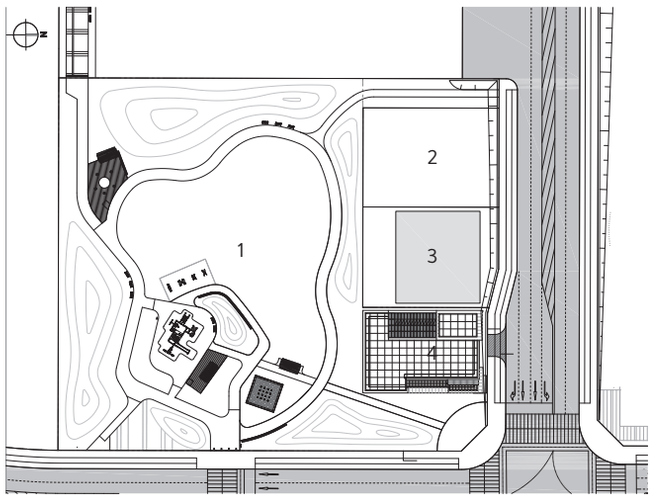
위례새솔어린이집

Wirye Saesol Daycare Center

설계자 | **노형래**_KIRA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1984년부터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1993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올해의 건축사 100인 국제전'에 초대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경제부 설계자문위원, 새만금개발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한국건축문화대상(현대예술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1_근린공원 2_종교시실 3_유치원 4_어린이집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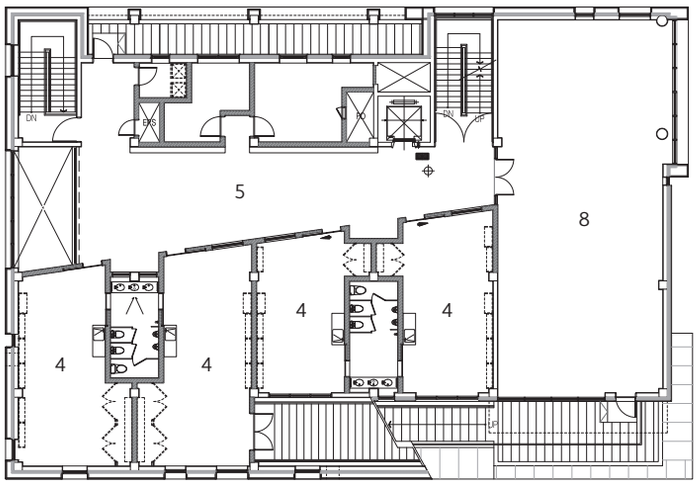
건축주 | 송파구청
감리자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서우산업개발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순환로 413
주요용도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대지면적(Site Area) | 10,025㎡
건축면적(Building Area) | 669.89㎡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38.2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6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95%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알루미늄 복합패널, 알루미늄 쉬트, 로이복층유리
- 내부 :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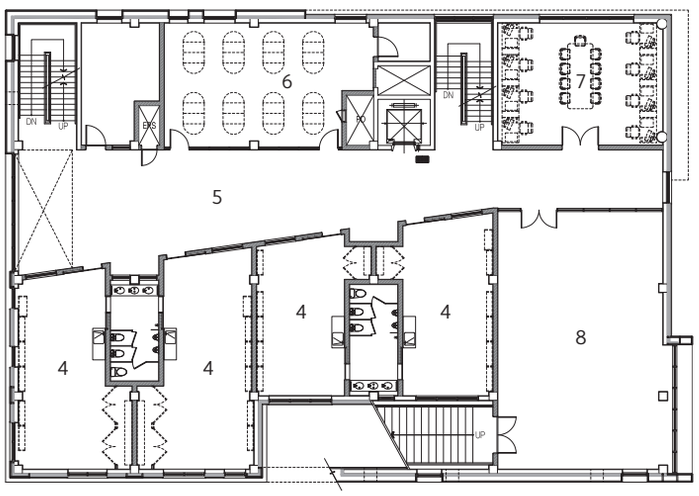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7 ~ 2014. 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9 ~ 2015. 2

- 설계팀 : 김원중, 최윤식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동도엠이씨인스파이어
  - 전기분야 : (주)동도엠이씨인스파이어
  - 소방분야 : (주)동도엠이씨인스파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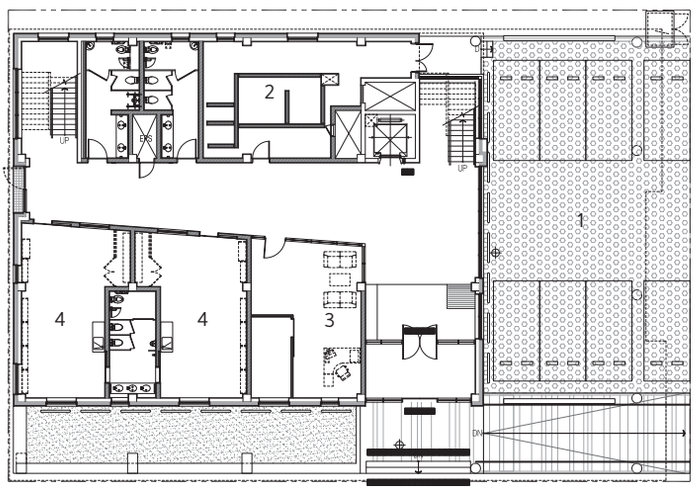
Client : Songpa-Gu Office
Architect : Roh, Heoung-rae
Project Team : Kim, Won-jung / Choi, Youn-sik
Location : 413, Wiryesunhwan-ro, Songpa-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Hanwool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Dongdo MEC
Electrical Engineer : Dongdo MEC
Fire Engineer : Dongdo MEC
Finishing
Exterier : Aluminum panel, Aluminum Sheet, Low-e double glazing
Interior : Eco friend paint, Eco friend soft fiber board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_ 주차장 2 _ 조리실 3 _ 원장실(양호실) 4 _ 보육실
5 _ 놀이홀 6 _ 식당 7 _ 교사실(휴게공간) 8 _ 유희실

계획개념

위례새솔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블록놀이를 통해 나무블럭을 쌓고 끼워 맞춰나가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공동주택군 중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들어서며 공원이 어린이들의 놀이마당이 되고, 관리와 통제위주의 어린이집에서 벗어나 자연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자연을 담은 학습의 장이 되고, 아이들의 체험적 교류의 장과 즐거운 놀이의 장으로 보육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학습공간이 될 것이다.

공간 및 평면계획

1층은 교차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8대의 주차공간과 주출입구를 계획하였다. 원장실은 출입구에 인접 배치하여 상담 및 관리에 편의를 고려했으며,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연령대가 낮은 아이를 돌보기 위한 2개의 보육실과 별도의 서비스동선을 갖춘 조리실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보육실과 유희실, 식당, 교사실이 위치하며 각각의 보육실과 활동영역이 연결되도록 공용부를 놀이홀로 계획하였고, 사다리꼴모양의 놀이홀은 입체적인 알코브 활동공간과 더불어 공원을 향해 열려있으며 넓고 높은 창으로 아이들의 실내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입면경사에 맞춘 계단식 이야기방을 유희실과 연계 계획하여 아이들의 새로운 독서공간으로 제시하였다.

3층은 보육실과 유희실(대), 교재교구실, 놀이홀이 위치한다. 유희실(대)은 발코니를 통해 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추가적인 야외놀이공간으로 확보되도록 하였고, 실내 놀이홀과 함께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가정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공간과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입면계획

상상력을 자극하며 형태적으로도 변화와 리듬감을 살리도록 두 개의 큰사각형을 돌출시켜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창호의 크기를 다양화하고 튀어나온 창과 들어간 창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입체적인 즐거움을 갖도록 하였다. 건물의 경사진 입면은 형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태양광패널을 디자인에 맞춰 설치하여 디자인의 흐름을 이어간다.

밝은 노란색의 알루미늄금속패널과 회색의 베이스패널을 주재료로 하여 색상적인 대비를 주고 건물의 차가운 색감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는 이미지를 살리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도록 빨강, 초록, 파랑의 포인트를 주었고, 내부에서도 변화를 주어 1층은 초록, 2층은 주황, 3층은 노랑으로 층별로 구분하여 시각적인 인지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1 _ 동측 전경 1
2 _ 동측 전경 2
3 _ 출입구 전경

1

2

3

4

1 _ 북동측 전경
2 _ 북측 전경
3 _ 2층 놀이홀
4 _ 2층 식당
5 _ 3층 유희실

5

빌라지오 디 마레 당선작

VILLAGIO DI MARE

발주자 : 퍼시픽랜드(주) / ㈜킴스이십일

설계자 : 조주환_KIRA, 이한 |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윤정현, 장항준, 전성주, 김승욱, 김태우, 조현민, 장해균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950-4번지 외 14필지
주요용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49,950㎡
건축면적 11,979㎡
연 면 적 78,926㎡
건 폐 율 24.85%
용 적 률 79.74%
규　　모 지하 3층 / 지상 9층
마　　감 외부 - 테라코타 패널

제주 리조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바랑(바다의 제주방언)을 바라보며 서드럭(돌이 많은 땅)에 다양한 재미를 갖춘 일상의 기억을 벗어나 자연의 오감을 제공하는 장소 "VILLAGIO DI MARE" 천혜의 땅 제주, 중문해변, 아름다운 제주의 사계절 안에서 이곳의 자연지형을 모티브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쉼/치유/체험/미감/미담의 "5 Seasoned Journey"의 건축 컨셉을 통해 단순 휴양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소비층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감성공간을 추구하였다.

Master plan

제주의 대표적 자연유산인 굼부리(휴양,문화시설)-쇠소깍(호텔조경)-주상절리(레지던스)-윗새오름(호텔주동)을 어우르는 journey loop를 형성, 제주의 자연을 담은 리조트로 계획 하였다. 지형 차이를 이용, 부지 전체에서 바다를 향한 조망(대양을 향한 뷰와 마리나를 향한 뷰)을 가능하게 하였고, 저층형 포디움과 단차있는 호텔 mass계획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시설별 계획

-호텔 : 전체 바다조망의 객실, 매스의 단차를 이용한 코너스위트의 활용, 지형차를 이용한 전망 좋은 대규모 로비 공간과 바다로 열려있는 지하 부대시설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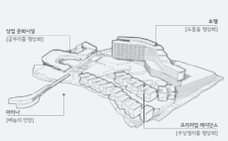
-레지던스 : 분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type의 개별형 단위유닛과, 테라스 형태로 전세대의 바다조망, 개별적 세대진입, 독립된 private pool 등을 갖추고 최상의 주거환경을 갖춘 프리미엄 빌라 계획을 하였다.

-휴양문화시설 : 제주의 함몰된 분화구인 굼부리의 형상을 전체매스에 도입, 바다전망의 오름을 만들어 다양한 공간체험을 가능케 하였다. 기존 돌고래 체험공간을 이용 상업시설의 집객요소로 적극 활용하였고, ocean deck 등을 통한 스트리트 몰과 마리나 시설의 연계로 부지의 효용성을 높였다.

DESIGN STRATEGY

제주의
자연을 담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Master Plan



1
NATURE
OF JEJUDO

DESIGN STRATEGY

시설을
연계하여
활성화하다

금루리를 형상화한 Gumburi Mall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Journey Band

2
ALL NEEDS
WITHIN ONE DAY

DESIGN STRATEGY

오감만족
공간을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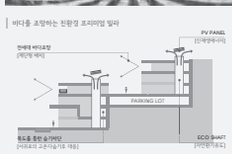
마리나와 외부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레저공간

레저선소의 NEEDS 맞춤형 다양한 유닛계획

3
5 SENSE
SATISFACTION

DESIGN STRATEGY

제주의 새로운
프리미엄 빌리지를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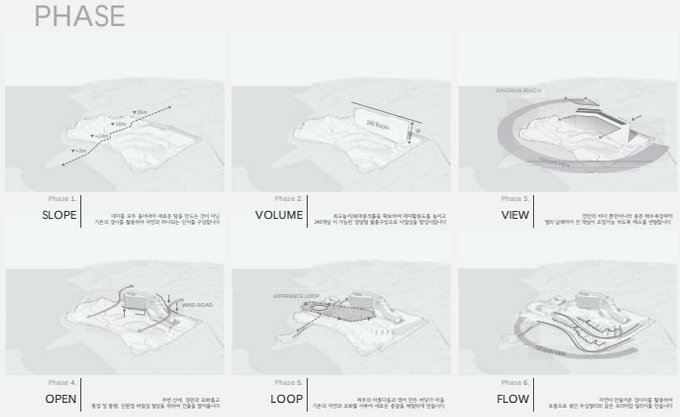


바다를 조망하는 친환경 프리미엄 빌라

지형차를 이용한 사업면적 최대화, 건설 최소화

4
PRIMIUM
ECO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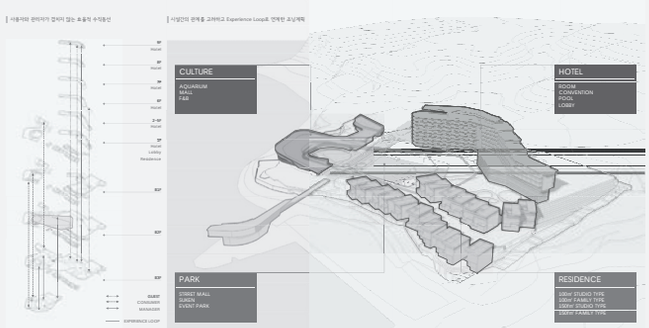
DESIGN 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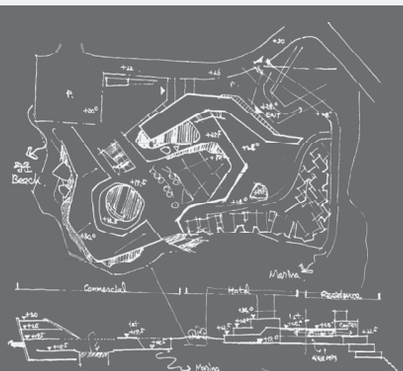
Phase 1. SLOPE
Phase 2. VOLUME
Phase 3. VIEW
Phase 4. OPEN
Phase 5. LOOP
Phase 6. FLOW

ZONNING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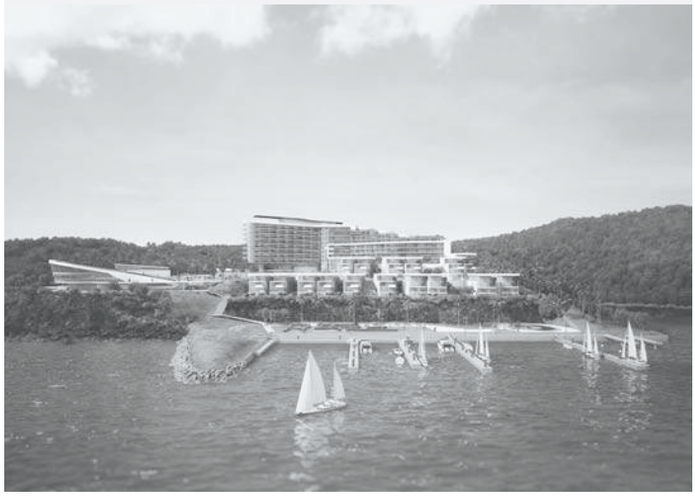
조닝계획



CONCEPT SKETCH



"5 VIAGGIO CONDITO DI JEJU, VILLAGGIO DI MARE"
[5 SEASONED JOURNEY IN JEJU, VILLAGE OF SEA]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의 건설공사

Builder's construction work during business suspension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① 종합건설의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② 전문건설의 경우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등 특정공사 제외) 및 ③ 조립 ·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자가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

다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 건설업자라도 건설산업기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본법 제14조 제1항의 범위를 넘어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주·시공하는 것이 영업정지처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외견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등록의무 면제 규정과 제14조 제1항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법령의 체계적 해석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려우므로 결국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 등록의무 면제 이유, 영업정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 내용 및 그 취지와 함께, 경미한 건설공사의 등록의무 면제이유,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나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참조)

판례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천 2백여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자 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 위반을 이유로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원심(대구고법 2013. 5. 31. 선고 2013누391 판결)이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수급·시공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등록면제 조항은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serial

글. 김홍기 | Kim, Hong-ki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빛과 침묵, 건축의 본질
5.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6.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9. 반 되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0.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 회장을 역임했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로빈슨 쿠르소가 건축가라고> <건축조형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에 관한 강연 및 연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오디세이 3 _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를 찾아서

뉴욕현대미술관과 필립 존슨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and Philip Johnson / Looking for the backdrop of International Style

그림 1) 맨해튼 53번가에서 바라본 뉴욕현대미술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크 어빙(Mark Irving)은 프로스펙트 매거진(Prospect Magazine) 2004년 11월호에 뉴욕현대미술관에 대한 글을 실으면서 '모더니티의 무덤' (The Tomb of Modernity)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빙이 진정 의도한 바는 '성소(聖所)'라는 의미였다. 성베드로 성당이 가톨릭의 본산이자 성소인 것처럼 뉴욕현대미술관 역시 '모더니즘 예술의 산실이자 성소라는 것이다. 어빙의 기사가 발표되고 두 달이 지난 2005년 1월 7일 코네티컷 주 뉴캐넌 글래스하우스에서 필립 존슨이 98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뉴욕타임즈는 기사 첫머리에 '미국건축계의 대부이자 앙팡테리블이 타계했다'라는 표현을 썼고, 뉴욕현대미술관에서의 활동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백수를 누리다 타계한 건축계의 노장에게 '앙팡테리블'(Enfants Terrible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트렌드세터로 이름을 날렸던 필립 존슨의 위대한 여정을 추적해 보자.

미술계의 앙팡테리블

시와 희곡과 소설을 쓰면서, 발레곡과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문화계의 마당발 장 콕토. 동성애자였던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연인은 천재 작가로 불리었던 레이몽 라디게(Raymond Radiguet)였다. 불과 10대 후반의 나이에 간결한 고전적 문체로 '육체의 악마(Le Diable au corps)'를 집필하여 작가로서 명성을 획득한 라디게는 장티푸스에 걸려 2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라디게가 죽자 장 콕토는 아편으로 실연의 고통을 달랜다. 결국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 장 콕토는 레디게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소설을 쓰는데, 이 작품이 바로 '무서운 아이들'(Les enfants terribles)이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 온 남매의 근친상간적인 사랑을 묘사한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작품의 제목 '앙팡 테리블'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무서운 신예, 겁 없는 신인,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킬 만큼 실력을 갖춘 당돌한 신인들에게 '앙팡 테리블'(enfant terrible)이라는 별칭이 붙여진다.

장 콕토가 '무서운 아이들'을 발표한 바로 그 해, 대공황이 밀어닥친 1929년 가을 뉴욕 5번가에는 현대미술관이 들어섰고 27살의 청년이 관장으로 취임했다. 미술관장하면 머리가 힛긋한 노회한 미술계의 원로를 떠올리기 십상이나, 채 서른도 안 된 알프레드(Alfred Barr, 1902-1981)가 관장직에 등극하면서 미술계의 앙팡테리블로 불린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한명의 '무서운 아이'가 뉴욕현대미술관 건축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훗날 미국 건축계에 이름을 떨치는 필립 존슨(Philip Johnson, 1906-2004)이었다. 미술관이 제 모습을 갖추기 직전이라고는 하나 어찌 20대 중반의 청년이 미술관 관장에 오를 수 있으며 건축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새로운 이론과 강령으로 무장된 미술계의 앙팡테리블들은 MoMA를 20세기 최고의 현대미술관을 만들자는 치기에 들떠있었다.[1)]

1) 1929년 근대 예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뉴욕현대미술관은 오늘날 모마(MoMA)'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The Museum of Modern Art의 축약어로 본문에서는 Mo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알프레드 바와 필립 존슨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 큐레이터쉽 분야 1인자인 폴 삭스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웰슬리 대학에서 미술사 강의, 뉴욕 현대미술관 관장직에 오르기 직전 알프레드 바에 대한 개략적인 프로필이다. 하버드 대학 부설 포그미술관(Fogg Museum) 관장이었던 폴 삭스((Paul J. Sachs) 교수가 뉴욕현대미술관 관장직에 그를 추천했을 당시 알프레드 바는 카네기재단 연구기금 수혜자로 결정되어 뉴욕대학 예술학부에서 근대미술과 큐비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요량이었다. MoMA의 후원자이자 설립자인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여사로부터 관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폴 삭스는 주저 없이 애제자인 알프레드 바를 추천했고, 폴 삭스의 연락을 받은 알프레드 바는 MoMA가 개관되기 세 달 전인 1929년 7월 1일 관장직을 수락했다.

알프레드 바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럽 현대 미술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유럽 미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진적인 흐름을 정확히 통찰하고 있었고, 근대디자인 교육의 표상인 독일의 바우하우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구성주의 예술가들과 네덜란드의 데스틸 운동의 리더들과 만난 경험을 지닌 당시로는 특이한 경력을 지닌 모더니즘 미술의 숭배자였다. 관장직에 오른 알프레드 바는 회화 중심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과거 어떤 미술관도 도입한 적이 없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그림 2) 뉴욕현대미술관 초대관장 알프레드 바

그림 3) 필립 존슨 (중앙)과 알프레드 바 부부의 1932년 이탈리아 여행

드로잉, 판화, 사진, 건축, 산업디자인, 무대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전략은 프린스턴 대학 재학 시 수강하였던 찰스 머리(Charles Maury)의 중세 미술사 강의에 영향 받은 것으로서, 찰스 머리는 중세 시대의 시각예술을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조각, 벽화, 공예 등을 모두 종합한 문명의 기록으로 보았다. 스승이 전해준 종합예술적 개념은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1927년 유럽여행 중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바우하우스의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었다. 웰슬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알프레드 바는 미국 대학으로는 최초로 20세기 미술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학부과정에 개설하고는 강좌 내용 속에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 산업디자인, 사진, 영화 등이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던 새로운 강의 방식이었다, 이 모델은 미술관 운영에도 그대로 침투된다.

프랭크 크로빈쉴트를 비롯한 MoMA의 운영위원회 이사들은 미술관 컬렉션 목록에 실용 예술인 건축과 사진, 산업디자인을 포함시키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시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미술관의 권위를 격하시킨다는 이유로 동시대의 건축과 사진, 산업미술을 컬렉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술성이 떨어지는 열등한 장르들의 작품을 모아놓고 어찌 우수한 미술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MoMA의 설립자인 록펠러 가문의 며느리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는 알프레드 바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전권을 위임받은 알프레드 바는 모든 전시를 자신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초창기 알프레드 바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파트는 건축디자인부로, 이 분야를 책임질 큐레이터가 필요했다. 알프레드 바는 그 자리에 하버드 대학을 갓 졸업한 필립 존슨을 임명하는데, 철학을 전공한 이 청년이 훗날 건축계의 거목이 되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필립 존슨은 1930년부터 1936년, 그리고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뉴욕 현대미술관의 건축디자인부를 책임진다. MoMA는 그에게 성장에너지를 공급한 모종판이자 토대였다. MoMA의 발전과정 속에 필립 존슨의 이름은 수없이 등장한다. 그의 족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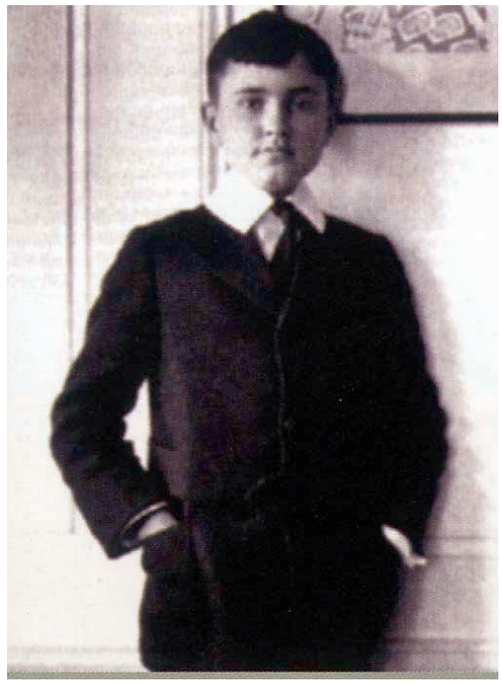


그림 4) 유년 시절의 필립 존슨

1930년 알프레드 바에 의해 MoMA 건축디자인부장에 필립 존슨 임명
1932년 필립 존슨과 헨리 러셀 히치콕에 의해 <인터내셔널 건축전> 개최
1934년 필립 존슨 주도 하에 <기계예술전> 개최
1936년 정치활동을 위해 MoMA 사직
1946년 MoMA 건축디자인부장직에 재임명
1947년 필립 존슨 주도 하에 <미스 반데 로에 건축전> 개최
1951년 필립 존슨 설계에 의해 <Grace Rainey Rogers Annex관> 개관
1953년 필립 존슨 설계에 의해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공원> 개관.
1954년 MoMA 건축부장직 사임
1964년 필립 존슨에 의해 동관 완공, 조각정원 확장.
1988년 필립 존슨의 기획으로 해체주의 건축전 개최

그림 5) 필립 존슨의 우상이 된 바우하우스의 미스 반 데 로에 (1931년)

그림 6) 1932년 개최된 '인터내셔널 스타일 건축전' 내부, 르 꼬르뷔지에의 사보아 주택 모형과 사진과 진열되어 있다.

건축 큐레이터 필립 존슨과 인터내셔널 스타일 건축전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흐른 1929년, 필립 존슨은 유럽건축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필립 존슨은 어머니에게 한통의 엽서를 보낸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중 하나예요.
언제가 어머니께도 이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엽서 뒷면에는 2년 전 완공된 바우하우스 건물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교사였다. 당시로는 신공법, 신조형언어로 무장된 최첨단 건물이었다. 철과 유리로 지어진, 장식에 배제된,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박스형 건물을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예찬할 수 있는 놀라운 식견은 어떻게 학습된 것일까? 약관의 나이인데다 하물며 철학을 공부한 비전공자 아닌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1906년 출생한 필립 존슨은 줄곧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왔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너무나 좋아했던 어머니 루이스는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변호사였던 아버지 호머 존슨은 어린 아들에게 알루미늄 회사 알코아의 주식 상당량을 넘겨줄 정도로 재력을 갖고 있었다. 부유한 가정환경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올 수 있었다.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샤르트르 대성당의 네이브에 서서 감동을 눈물을 흘렸고, 중세건축과 역사의 관계를 체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1928년 그리스 아테네 여행. 책에서 접한 파르테논이야말로 자신이 느낀 감정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찌꺼기에 불과했다. 거대한 석조 기둥을 만지면서 현존의 의미를 탐미하고, 건축 속에 침잠된 역사를 들추면서 감격해 했다. 건축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학을 좋아했고, 건축과 음악을 좋아했건만 정작 그가 택한 전공은 철학이었다. 재학 시절 존슨의 꿈은 장래에 철학교수가 되는 것. 어느 날 하버드 대학 철학과 주임교수는 "왜 철학 교수가 되려 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나 존슨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스 플라톤 철학에 정통한 라파엘 데모스 교수의 강의에 매혹되었지만 화이트헤드 교수의 강의를 듣고는 크게 낙담한다. 강의 내용 그 어느 것도 가장 단순한 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철학 교수를 향한 자신의 꿈에 균열이 일었고, 미래는 뿌연 안개 속에 젖어 있었다. 건축은 미궁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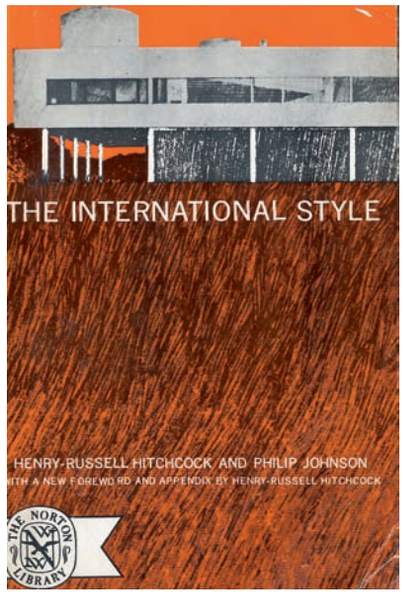


그림 7) 헨리 러셀 히치콕과 필립 존슨이 1932년 공동저술한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표지, 1964년 개정판

알프레드 바로부터 뉴욕현대미술관 건축부장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필립 존슨의 심정은 미노르타우르스를 무찌르고 미궁을 나선 테세우스 같았다. 알프레드 바는 필립 존슨에게 '건축전'을 준비하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지난 10년간 건축에서의 모더니즘 현상을 모아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다. 어느 미술관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건축전시회였다. 필립 존슨은 건축역사가 헨리 러셀 히치콕(Henry Russell Hitchcock)을 끌어들였다.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히치콕은 1929년 당대의 건축경향을 정리한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라는 저서를 발표했을 정도로 건축역사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론가였다. 전시회 제목은 인터내셔널 스타일: 1922년 이후의 건축(The International Style : Architecture since 1922)으로 정했다.

전시회 타이틀을 'International Style'로 결정한 것은 관장 알프레드 바로 알려져 있다. 에스페란토어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초국가적인 형태, 즉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새로운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건축전 출품 목록을 보면 자못 화려했다. 월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교사(1926). 미스 반 데 로에의 바이젠호프 주거단지 집합주택(1927)과 바르셀로나 파빌리온(1929), 튜겐하트 주택(1930), 르 꼬르뷔지에의 사보아 주택(1931)과 가르쉐 주택(1928) 에릭 멘델존의 쇼켄 백화점(1928)등 1922년 이후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주옥과 같은 건축들이 망라되어 있다. 1932년 2월 10일 오픈한 이 전시회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건축사들도 참여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 중심에 있었고 시카고 튜리븐타워 현상설계의 당선자 인 레이몬드 후드(Raymond Hood)와 리차드 노이트라 (Richard Neutra)를 포함해 총 4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근대건축의 특성을 명료히 드러낸 월터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알프레드 바는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면 꼭 도록을 만들었다. 1932년 개최된 건축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작품과 관련된 이론서를 발간했다. 헨리 러셀 히치콕과 필립 존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훗날 근대건축의 지침서가 된다. 건축의 역사를 다루지만 이데올르기나 사회학적인 이론들과는 무관하며, 형태적으로 관찰되는 새로운 건축 경향에 초점을 두고는 콘크리트와 철 건축으로 대변되는 근대건축 양식의 미학적 특성을 명료하게 도출해 놓았다. 필립 존슨은 히치콕과의 공동 집필을 통해 건축 이론에 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평론가로서의 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필립 존슨의 정치적 여정

건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자 필립 존슨은 1933년 '1900년대의 사물과 오늘날의 사물전'을 1934년에는 '기계예술전'을 큐레이팅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갔다. '기계예술" 전시회에는 무려 4백점이 넘는 공업제품들이 6부로 나누어 소개되었다. 1부 산업기구, 2부 가정용품, 3부 사무설비, 4부 주방용품, 5부 과학실험장비, 6부 실험용 유리와 도자 등으로 구성돼 익명의 산업생산품의 기능과 형태에도 새로운 미학적 가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처럼 의욕적인 전시회를 기획하던 필립 존슨은 1936년 돌연 알프레드 바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명목은 그가 평소에 지녔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베를린, 뉘른베르크, 자신의 집 오하이오를 오가면서 1940년까지 극단적인 정치활동을 펼친다.

필립 존슨이 극우주의자, 파시스트, 반 유대주의자, 나치 선동가였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알려져 왔다. 인터내셔널 건축전을 앞두고, 건축사와 작품을 섭외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데 이때 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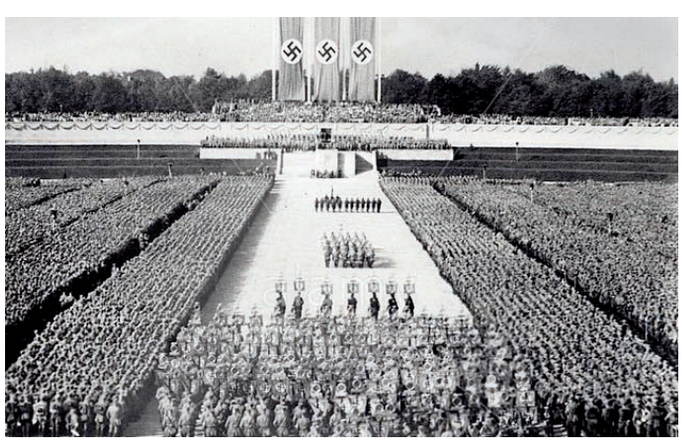


그림 8) 뉘른베르크의 나치 전당대회 (1936년), 필립 존슨은 1938년 전당대회를 참관한다.

의 포츠담 대집회를 목격하면서 파시즘과 히틀러라는 영웅의 등장에 매혹됐다. 이 때부터 그는 파시스트 이론가인 경제학자 로렌스 데니스(Lawrence Dennis)의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대공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대한 리더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미국 내의 파시즘 도래를 고대한 로렌스 데니스는 1936년 '다가 올 미국의 파시즘'(The Coming American Fascism)을 저술한 최고의 이론가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엘리트에 의해 사회 개조가 일어나야 한다고 간주하고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과 영웅의 등장을 주장했다.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MoMA를 사직한 필립 존슨은 로렌스 데니스와 함께 파시스트 활동에 몰입한다. 파시스트와 관련한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정당을 만들어 극우주의자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1938년에는 데니스의 추천으로 나치 선전국 초청을 받고 독일 뉘른베르크를 방문한다. 뉘른베르크의 채펠린광장은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나치의 전당대회가 열린 나치의 전당이었다. 수많은 서치라이트가 환상적인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가운데 히틀러가 강단에 오르고 그가 힘차게 연설할 때마다 군집한 청중들은 일사불란한 반응을 보였다. 열광적인 모습에 매혹된 그는 미국 내 반 유태계 인사들과 함께 히틀러의 나치즘을 지지하고 폴란드 침공을 정당화 하는 등 파시스트에 편향된 행동을 취했다.

1940년 들어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회의를 느끼지만 이미 FBI는 파시스트인 그를 관찰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었다. 존슨이 정치활동을 접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이 때였다. 34살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마르셀 브로이어로부터 건축을 배운 그는 38살의 늦은 나이에 석사학위를 받고는 짧은 기간 군복무를 거친 뒤, 1946년 MoMA 건축부장직에 복귀한다. 필립 존슨은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멘토로 삼아온 미스 반데 로에의 대규모 회고전을 기획한다.

환스워즈 주택과 시그램 빌딩

1947년 11월 MoMA에서 개최된 미스의 회고전에서 필립 존슨은 작품번호 8번으로 표기된 환스워즈 주택(Fanshworth House)의 모형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유리로 처리된 장방형 입체의 아름다움에 빠졌다. 곧장 환스워즈 주택을 기본 문법으로 삼아 주택 설계에 들어갔다. 그가 설계한 글래스하우스(Glass House)는 환스워즈 주택보다 2년 앞선 1949년 완공된다. 이 전시회는 향후 필립 존슨이 펼치고자 하는 건축세계의 토대가 되었고, 1950년대 중반까지 한동안 미스의 영향아래 침잠하는 계기가 된다. 1950년대 들어 필립 존슨의 활동영역은 미술관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장된다. MoMA 건축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많은 화가들과 접촉하였고, 부유한 재산을 바탕으로 미국의 현대미술, 특히 팝아트 계열의 미술품 수집가로 활약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넓혔다. 시그램 소유주의 딸 필리스 램버트(Phyllis Lambert)와 가까워진 것도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였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 시그램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 파크 애비뉴에 사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1953년이었다. 시그램 본사 빌딩의 초기 설계는 찰스 러크맨(Charles Luckman)에게 의뢰되었지만 시그램 소유주의 딸인 필리스 램버트는 평범한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는 당시 뉴욕현대미술관의 건축분야를 이끌고 있던 알프레드 바와 필립 존슨에 의뢰하여 프로젝트를 소화할 만한 유능한 건축사를 추천받고자 했다. 월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 로에, 에로 사리넨,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과 같은 당대의 거장들이 거론되나 시그램 빌딩 설계자는 미스로 낙점되었다. 바우하우스가 폐교된 후 미스의 미국행을 주선한 사람이 필립 존슨이었다는 사실과 미스의 전시회를 대규모로 개최했던 존슨의 행적을 고씹어 보면 선정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필립 존슨에게 있어서 미스는 영웅적인 존재나 다름없었다.[2] 시그램 빌딩의 설계는 미스와 필립 존슨 공동설계로 진행되었고 필립 존슨은 시그램 빌딩의 퍼시즌 레스토랑 디자인을 담당한다. 강철과 유리를 사용한

1) 1929년 근대 예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뉴욕현대미술관은 오늘날 모마(MoMA)'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The Museum of Modern Art의 축약어로 본문에서는 Mo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9) 인터내셔널 스타일에 대해 설명하는 필립 존슨 (1932년 사진)

그림 10) 국제주의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시그램 빌딩.

시그램 스타일의 사무소 건축은 급속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용어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1958년 시그램 빌딩이 완성될 무렵 필립 존슨은 미스의 건축 세계를 벗어나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 나갔다. 존 버기(John Burgee)와 함께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서양 고전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건축 세계를 열어간다.

MoMA의 신축, 인터내셔널 스타일

이쯤해서 MoMA의 조각공원과 관련한 필립 존슨의 흔적을 살펴보자. 1929년 모마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전용 미술관이 없었다. 11월 8일 개관되기에 앞서 록펠러 여사는 임시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 뉴욕 5번가 57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헥커스 빌딩의 6개의 방을 빌리는 것으로 시작한 모마는 기금조성이 되면 영구적인 미술관을 건립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대공황이 닥쳐왔고, 기금조성은 지지부진했다. 1932년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부인은 뉴욕 중심가인 53번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을 기증하기로 결정한다. 전용미술관으로 지어진 미술관은 아니지만 임대 건물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미술관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미술관 건립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이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미술관 신축계획의 설계지침으로 삼은 알프레드 바는 미술관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모더니즘을 선도해온 유럽의 리딩 건축사들을 떠올렸다. 바우하우스의 월터 그로피우스 그리고 모더니즘의 선구자 미스 반데 로에처럼 모마의 명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할 국제적인 건축사가 선정되길 원했다. 그러나 미술관 설계의 총책은 에콜 드 보자르 출신의 필립 굿윈(Philip Goodwin)에게 돌아갔다. 필립 굿윈은 설계비를 미술관 건축비용에 기부할 정도로 온화함을 갖추고 있었지만 결코 뛰어난 건축사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의 건축은 파리 에콜드 보자르의 고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미술관의 건립 취지와는 맞지 않았다. 이사회도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 필립 굿윈을 도울 건축사를 섭외하기로 결정했다.

알프레드 바는 그해 5월 12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면서 미스 반데 로에와 만나 뉴욕 현대미술관 설계에 협력자로 참여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미스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알프레드 바는 미스의 긍정적 반응에 크게 고무되었다. 미스의 평판은 체코에 세워진 튜겐하트 주택과 개방공간의 개념을 성취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통해서 미국에도 알려져 있던 터였다. 때마침 설립자인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가 베르사

그림 11) 1936년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완공된 뉴욕현대미술관, 필립 굿윈과 에드워드 듀엘 스톤 공동설계

이유 궁전을 방문할 목적으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알프레드 바는 파리의 크릴론 호텔에서 애비 알드리치와 만나 미스를 설계자로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실망스런 소식이 날아왔다. 건축위원회가 필립 굿윈과 함께 일할 건축사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에드워드 두엘 스톤(Edward Durell Stone)을 선정해 버린 것이다. 알프레드 바는 충격에 빠졌다. 뉴욕 중심부에 근대건축의 거장인 미스의 건물이 처음으로 들어설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1939년 맨해튼 53번가에 필립 굿윈과 에드워드 드웰 스톤의 공동설계로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전시관을 구축한 MoMA는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증개축 공사를 시행한다. 주목할 점은 그 가운데 세 번을 필립 존슨이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951년 7층 규모의 'Grace Rainey Rogers Annex' 건물을 시작으로 1953년에는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정원을, 1964년에는 미술관의 조각정원의 확장계획과 동관(East Wing)을 맡아 설계한다. 현재까지도 존슨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1953년에 설계한 조각정원으로 이 정원은 MoMA의 설립자 이름을 따서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정원(Abby Aldrich-Rockefeller Sculpture Garden)으로 명명되는데, 필립 존슨은 미스 반데 로에의 건축원리와 무

그림 12) 필립 존슨에 의해 완성된 뉴욕현대미술관 조각 공원 (1953년 겨울 모습)

어인들이 즐겨 사용한 정원 개념을 이 공간 속에 담고자 했다. 알함브라 궁전처럼 바닥에 얕은 물이 흐르는 수공간을 만들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처럼 직선적이고 간결한 형태언어를 구사했다. 덧붙여 이탈리아 광장의 개념을 떠올리게 했다. 존슨은 특히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의 분위기를 찬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산마르코 광장이 베니스의 심장인 것처럼 모마의 조각정원도 맨해튼의 심장이 되길 원했다. 조밀한 베니스의 골목을 지나 넓디넓은 산마르코 광장에 이르면 자유로움과 개방감에 휩싸이듯이 밀집문화의 맨해튼 격자 블록 속에서 물과 나무가 존재하는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정원이야말로 도시의 오아시스처럼 인식되길 원했다. MoMA의 조각정원이 들어선 53번 스트리트 일대는 현대미술의 성지이자 휴식처가 되었다.

그림 13) 필립 존슨이 1964년 설계한 뉴욕현대미술관 동관 (네개의 창으로 분할된 커튼월 건물)

요시오 다니구치와 MoMA 확장계획안

그림 14) 요시오 다니구치에 의해 2004년 재건축된 뉴욕 현대미술관 전경

1990년대 중반 들어 소장 작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시면적이 협소해지자 MoMA는 뉴욕 5번가 53번 스트리트 인근지역을 하나 둘씩 사들였다. 1995년에는 인접한 도셋 호텔과 주택 주거건물 2동을 사들이면서 그 다음 해 확장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 가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10명의 건축사가 출품한 확장계획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1차 지명된 건축사는 스티븐 홀, 렘 콜하스, 이토 도요, 베르나르 추미, 라파엘 비뇰리, 도미니크 페

로, 헤르조그와 드 뮤론, 토드 윌리엄, 요시오 다니구치 총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3작품이 최종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다. 파리 라빌레트 국제현상설계의 우승자로 잘 알려진 베르나르 추미와 훗날 런던 테이트 모던 현상설계에서 우승한 스위스 바젤의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뮤론 그리고 일본건축사 요시오 다니구치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그 해 12월 8일 뉴욕 근대미술관은 MoMA 확장계획의 최종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선자는 요시오 다니구치. 주변에서는 의외의 결과라 했다. 출품자 가운데 가장 덜 알려진 건축사였다. 더욱이 그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15) 애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정원 2002년에 요시오 다니구치에 의해 모마 전체가 리모델링되지만 필립 존슨의 1953년 오리지널 디자인을 고스란히 보존한 채 정원의 남쪽 테라스를 재건해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식으로 옻칠한 상자에 설계 도면을 곱게 담아 주최 측에 제출했다는 요시오 다니구치의 계획안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MoMA가 추구해온 건축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건축사임을 알게 된다. 그의 작품에는 일본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의 작품에는 거의 곡선이 등장하지 않는다. 디테일이 별로 없다. 현상설계에 당선된 요시오 다니구치가 설계비를 많이 주면 건축물을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농담을 했듯이, 있는 듯 없는 듯 건축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MoMA가 추구해 온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기본 룰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요시오 다니구치가 MoMA 재건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야외 조각공원이었다. 건축물을 완성하기 전에 뉴욕현대미술관의 동관과 야외 조각공원을 설계했던 필립 존슨을 만나기 위해 코네티컷 주 뉴 캐넌에 위치한 존슨의 자택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를 찾아간다. 자신에 개조해야할 조각정원 설계자가 미국건축계를 대표한 필립 존슨이니만큼 적어도 개조하기 전에 그의 자문을 얻는 것이 도리였을 게다.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글라스하우스의 실내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먼저 필립 존슨이 양복 상의를 걸쳐 입었다. 그러자 다니구치가 자신의 양복이라며 반색한다. 존슨은 순간 어리둥절해 했다. 두 사람의 양복이 똑같은 색상에 비슷한 디자인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트렸다. 양복 디자인이 똑같은 것처럼 두 사람의 건축 디자인 코드는 너무나 비슷했다. 필립 존슨 그리고 요시오 다니구치. 두 사람 사이에는 미시안(Miesian)적인 디자인 어휘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요시오 다니구치의 건축에는 차갑고(Cool), 정제되고(Restrained) 조용하고(Quiet) 이지적이라는 단어가 붙고, 차가운 상자(Cool Box)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미스의 환스워즈 주택이나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와 다름 아니다. 커튼월과 알루미늄 패널을 즐겨 사용하고 화강석과 라임스톤, 콘크리트처럼 무채색 계열의 색조를 좋아하는 요시오 다니구치의 경향은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미스와 필립 존슨이 추구했던 노선과 일치하며, 나아가서 뉴욕현대미술관이 추구해온 건축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에필로그, 건축계의 트렌드 세터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은 건축분과 설립 75주년을 기념하여 '75Years of Architecture at MoMA'라는 특별전을 기획했다. 르 꼬르뷔지에의 사보아 주택 모형과 휴고 헤링의 스케치와 벅민스터 풀러의 포토몽타주가 전시되고 루이스 칸과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뉴욕현대미술관은 1932년

인터내셔널 건축전 이후 다양한 주제의 건축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1960년에는 건축분과 디렉터였던 아더 드렉슬러의 지휘 하에 환상건축전이 열렸고, 1967년에는 건축판타지전이 열렸다. 1988년 필립 존슨이 기획한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축전은 해체주의 건축의 서곡을 알렸다. MoMA의 조각정원에서 북동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포스트모던 건축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AT & T 빌딩(현재의 소니 빌딩)의 페디먼트가 보인다. 1979년 필립 존슨이 이 건물의 모델을 타임지에 들고 나왔을 때 건축계는 충격을 받았다. 건축계에 포스트모던 건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대건축에 고전주의적 경향의 불씨를 당겼다. 그 주인공 역시 필립 존슨이었다.

1996년 1월 뉴욕 시그램 빌딩 저층부 퍼시즌 레스토랑에 건축계의 스타들이 모였다. 필립 존슨의 9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1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95세 생일 파티가 열린다. 당대 최고의 건축사들이 군집했다. 그때 남긴 흑백 사진 속에 마이클 그레이브스, 프랭크 게리, 리차드 마이어, 피터 아이젠만, 찰스 과스메이, 로버트 스턴의 모습이 보인다. 자하 하디드는 런던에서 렘 콜하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아라타 이소자키는 도쿄에서 합류했다. 현대건축의 트렌드를 쥐락펴락했던 、두 목의 생일축하연을 보는 듯하다. 그로부터 4년 후 노익장을 과시했던 필립 존슨은 그가 설계한 글래스 하우스에서 98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앙팡테리블의 영면이다.

그림 16) 2001년 1월 시그램 빌딩 퍼시즌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필립 존슨 95회 생일축하연,
필립 존슨 오른쪽 여인이 시그램 빌딩의 건축주 필립스 렘버트 (photo, Timothy Greenfield-Sanders)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워크숍 및 건축탐방(경상북도 안동, 청송 일원)을 다녀와서

After attending Seoul Northern area Architects' Workshop and Field Survey

글. 이종호 | Lee, Jong-ho
건축사 / 시원 건축사사무소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 및 건축탐방 행사가 올 해로 8년 째 접어들었다. 금년부터는 동대문지역건축사회도 함께 참여했으며, 주관은 우리 노원지역건축사회가 맡아 필자의 제안으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안동, 청송 지역을 다녀왔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안동은 도청 소재지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방영 중인 KBS 1TV 대하드라마 '징비록'의 주인공 서애 류성룡 선생의 삶의 자취가 묻어있는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을 주축으로 한 전통문화 도시답게 사방으로 전해지는 안동의 기품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몇 차례 와본 하회마을이지만 올 때마다 그 느낌은 다르다. 이번엔 하회마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부용대와 강기슭에 세워진 옥연정사부터 찾았다. 옥연정사는 서애의 서실로, '징비록'을 구상하고 저술하며 임진란을 평가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70이 넘은 문화해설사께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징비록의 뜻을 풀이해서 설명해주시는데 열정과 총기가 대단하시다.

'징비' 라는 책 제목은 시경에 나오는 문장을 압축한 것인데 '예기징이비역환(豫其懲而毖役患)',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서애는 무엇을 예감했는지 이 집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 멈춘 공사를 승려 탄홍이 도왔다고 한다. 장삼이사가 모아준 시줏돈을 10년간 가져다 바친 것이다. 그렇게 만든 집에서 쓴 징비록이 국보 132호가 됐으니 책 한 권에 서애와 스님과 민중의 공력이 담기게 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건물형태는 문간채, 바깥채, 안채, 별당의 4개 건물로 구성된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부엌이 중앙에 있는 특이한 구조로 4개의 방을 동시에 난방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일반 살림집으로는 불편한 구조지만 서실이라는 특수 용도에 잘 부합하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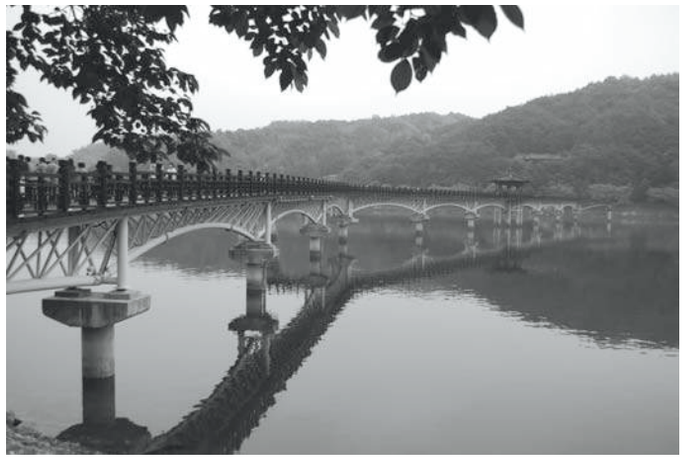
징비록이 쓰여진 옥연서당

찔레꽃 짙은 향기를 맡으며 부용대로 올라가 보았다. 64m 높이의 절벽(서쪽에 있는 언덕에서 서애라는 호를 짓게 되었다고) 위에 서면 강 건너 하회마을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연화부수형'이라고 하며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행주(行舟)형' 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곳엔 우물을 파지 않는다고. 백두대간 끝자락 화산의 정기를 이어받고 우측 전면에 문필봉이 있어 큰 인물(문장가, 대학자)이 배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어 겸암정사로 가보았다. 이곳 또한 하회마을 강 건너 부용대 기슭에 세워져 옥연정사와 대응된 위치에 있다. 겸암정사는 류성룡의 동생 겸암 류운룡의 서실이다. 부용대 밑의 깊은 소(沼)를 빈연이라 부르는데 이 빈연의 북쪽 절벽위에 위치한 바깥채, 안채 2동으로 이루어지며 반달형의 담을 쳐 경계를 지었다. 바깥채는 4*2칸 규모의 합각지붕집이다. 앞면에 좁은 툇마루를 놓고 계자난간을 둘렀다. 구름무늬 난간대가 있는 누마루에 앉아 잠시 신선이 된 기분으로 하회마을을 바라보았다.

뻐꾹새 소리에 아카시아향기를 맡으며 솔 숲길을 걷는다. '유교문화의 길'이라 이름 지었다. 주변엔 모내기가 한창이다. 버스로 이동하여 하회마을 입구에 있는 목석원 식당에서 안동 한우불고기로 점심을 먹고 셔틀버스 대신 오솔길을 걸어서 하회마을로 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즐기고 또 다른 문화해설사를 따라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인근에 있는 병산서원은 진입로가 공사 중이라 못가고 버스로 이동하여 안동댐 가는 길에 있는 월영교에서 강물에 비친 다리를 거닐며 회원들과 '안동역에서' 란 가요를 부르며 흥겨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종택과 서원이 산재한 정신문화의 본향으로 눈길 주는 곳마다 선현의 삶의 향기가 넘쳐나는 안동을 뒤로하고 청송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달기약수 식당가에 도착, 동동주와 함께 닭백숙으로 저녁을 먹고 숙소인 청송한옥민예촌에 도착했다. 청송한옥민예촌은 작가 김주영 선생의 대하역사소설 '객주'를 테마로 한 한옥마을로 문학과 장터가 어우러지는 세계 유일의 문화 테마타운이다. 우리는 가장 격이 높은 대감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동료들과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서 메밀묵에 막걸리 몇 잔을 거나하게 더 마시고 늦은 밤 혼자서 맨발에 흰 고무신 신고 깜깜한 밤길을 산책했다. 은은한 가야금 소리와 요란한 개구리 합창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날씨가 흐려 별 볼 일은 없었지만 아주 운치 있는 밤이었다.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서 밖으로 나와 인적이 고요한 마을 뒤 산길을 올라가 보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좋다. 옆의 언덕에 있는 송화된장마을까지 갔다 내려오니 그제야 회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 인사를 나눈다. 생원댁, 교수댁, 참봉댁, 정승댁, 훈장댁, 영감댁, 대감댁에 우리 일행이 각각 흩어져 잠을 잔 것이다.

송이버섯전골로 아침식사를 하고 인근 된장마을, 수석꽃돌박물관 관람에 이어 청송백자전시관에 들러 500여년 청송 백자의 혼을 느껴보았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다. 버스로 이동하여 이번 답사 중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송소고택으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버스정류장이 청송 사과 형상으로 디자인 되어 보기 좋았다. 걸어서 개천 길 따라 들어가는데 무슨 나무인지 몇 그루의 거목에서 꽃가루가 눈처럼 날린다. 송소고택(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앞에 이르자 청송 심씨 11대 주손 이라는 분이 나와 안내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은근히 유머가 있으시다. 청송 심씨는 조선시대 정승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 집안이다.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대손 송

소 심호택이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이곳 덕천동으로 이전하면서 1880년경에 지었다. 총 7동의 99칸 기와집 이었는데 현재 92칸이 남아 중요민속자료로 등재되어 있다. 지금은 사랑채, 누마루방, 별채, 행랑까지 한옥스테이로 숙박이 가능한데, 그 전에 집을 한동안 비워놓았을 때는 30년 동안 50번이나 도둑이 들었다고. 대문 현판 글씨는 위창 오세창 선생이 쓴 전서체다. 배산임수에 따른 동향집인데 집 앞으로 신흥천이 흐르고 건너편 안산이 살찌고 둥글다. 고창의 인촌 김성수 고택도 북향의 명당인데 우리 조상들은 양택이나 음택 배치 시 남향을 고집하지 않고 주변 지형 즉, 산세와 물길을 더 중요시 하였다.

대문에 턱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앞쪽에 가림담장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게 배려한 것을 볼 수 있다. 한옥은 오랜 세월을 견뎌오면서 남아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다. 점심 무렵 영주 부석사로 이동하여 숱하게 와 본 부석사를 돌아보고 귀경길에 올랐다.

이사회 개최 현황

□ 제6회 이사회

2015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7일(수) 오후3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제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 「입회비 분할 납부의 건」이 논의됐고, 부의안건으로는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2015건축의 날'포장자 추천의 건」, 「정년퇴직 시도건축사회 직원에 대한 공로상 수여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제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
- 협의결과 :
  ▸ 현행 정관·제규정중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 등이 많아 금년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 (총회 승인사항은 내년 정기총회에서 정비)

  ▸ 정관·제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시도회장 등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기로 함.

· 제2호 : 입회비 분할 납부의 건
- 협의결과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건의(5.11)한 입회비 분할납부제 도입에 대해 협의한 바, 현행 정관이나 관련규정 및 기존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즉각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카드 할부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정관·제규정 정비시 검토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 의결 : 시.도건축사회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16개 시.도건축사회는 시도회장단의 의견에 따라 2014년도와 동일하게 교부금을 지원하고, 제외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에는 차기 이사회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 의결 : 회원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회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고자 2015년도 동호회 사업예산 4천만원을 동호회별로 지원하기로 함.
  ※ 동호회 : 축구, 등산, 미술, 마라톤

· 제3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의결 : 협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 운영하기로 함.

 김주덕('53년생)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강사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화 (02) 3481-4200 팩스 (02) 3481-5155
 최상철('64년생)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안양교도소 청렴옴부즈만 위원 한국전력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 전화 (02) 2182-0055 팩스 (02) 2182-0007
 박정원('62년생)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협약 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법개선팀 카르텔분과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역임(심결지원2팀장, 유통거래과장, 조사국 서기관) 전화 (02) 772-4938 팩스 (02) 772-4001~2
 황용현('59년생) 자문회계사	천지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감리협회 자문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단 자문위원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사)한국법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형사조정위원 전화 (02) 3700-2200 팩스 (02) 3700-2299

· 제4호의안 : 「2015 건축의 날」 포상자 추천의 건
- 의결 : 시.도건축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포상대상자를 협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6.16)하여 상정한 원안대로 20명 전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키로 함.

  ※ 정부포상 수상자 확정 절차 (15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 국토교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1차) → 행정자치부 심사·확정 (2차)

· 제5호의안 : 정년퇴직 시도건축사회 직원에 대한 공로상 수여의 건
- 의결 : 협회 발전을 위해 정년까지 봉사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을 수여하기로 함
  ▸ 포상종류 : 공로상
  ▸ 부상 : 재직년수에 따라 차등
  · 20년미만(30만원 상당), 20년이상(50만원 상당)

  ☞ 2015 상반기 대상자: 2명 ('15. 6.30 정년퇴직)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사무처장 최평종

· 전라남도건축사회 사무국장 이정수
※ 예산은 행사사업비 (각종시상 및 행사비 등)에서 집행

기타사항
· 제7회 이사회는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일정('15.7.17~7.18)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도시재생·리모델링위원회 회의

제1회 도시재생·리모델링위원회가 지난 6월 9일(화) 오저10시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위원회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위원회 추진과제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선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령 개정 추진 △세미나 개최로 하기로 하며, 정기회의 날짜, 위원별 담당법령 및 업무, 팀구분, 세미나 세부계획 등은 법제위원회 워크숍(6/23 예정)의 위원회별 논의시간에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개선방향에 관한 건
- 위원장, 이용석 위원, 최재윤 위원과 국토부 담당자로 협의단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1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

제1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3일(화) 오후1시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위원회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녹색건축세미나(1차)>
· 일자 : 9월 8일(화) 예정
· 주제 : 불연성능 단열재의 비용 및 수급문제, 시공 시 자재확인 문제, 자재DB구축방안 등

<녹색건축세미나(2차)>
· 일자 : 11월~12월
· 내용 : 녹색건축에 대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역할이 부각되도록 내용 구성

□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가 지난 6월 9일(화) 오후 4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에 대한 건
- 금년 국제교류 일정에 대해 추후 국제위원의 참여의사를 취합하기로 함.

· 제2호 :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 초청에 대한 건
- 회장을 포함한 우리협회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함.

· 제3호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국대회 초청에 대한 건
- 회장을 포함한 우리협회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함.

□ 제1회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단 회의

제1회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단 회의가 지난 6월 3일(화) 오후 4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 등에 관한 사항
- 우리 협회는 내부적으로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원, 시도건축사회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FIKA 회장단 회의(6.4)에는 대회 개최에 우리협회는 적극 참여하나, 3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조직위원회 정관('15.5.27)에 대해 추후 검토하여 의견회신하기로 함.

□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0일(수) 오후 4시에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회관 외부측면 간판 개선 건
- 회관 외부측면 간판 개선의 건은 안택영 위원이 제안한 의견을 시안작업(서체 및 색상 등)후 위원들과 회람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옥상 등의 간판은 위 시안을 기본으로 예산검토 후 진행하기로 함.
- 기존 중앙간판은 베이스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후 진행.

· 제2호 : 회관관리규정의 개정 건
- 국가기관이 주관하거나 협회에 위탁한 행사의 경우, 회관사용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국민은행 창문설치 건
- 회관 1층에 입주한 국민은행의 창문설치는 창문4개(2면유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창문2개(단면유리) 설치도 가능.

· 기타사항
- 로비 공간 활성화 및 국제회의실 영화상영관 활용 검토 건은 위원장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논의 요함.

□ 제1회 청년위원회 회의

제1회 청년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1일(목) 오전 10시에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의 건
– 6, 7월중 협회홍보 및 신진건축사 육성, 건축교육사업 추진 등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세부추진계획을 설정하기로 함.
· 기타
–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회홍보 및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건축프로그램(ex.어린이건축창의체험)을 만들어야 함.
– 유명 인터넷 매체(ex. 네이버케스팅 등)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인 만큼 이를 통한 협회 및 회원의 홍보도 고려하여야 함.
– 협회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회원작품을 연중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협회가 각종 업체(세무, 행정, 경영, IT, 자금운용 등)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진건축사들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축사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제3회 입법지원위원회 회의

제3회 입법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3일(화) 오후 4시에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추진의 건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전면 재정비하여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입법지원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은 되었으나, 한국건축가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김태흠의원 발의안 보류.(6.15)

□ 제1회 50주년기념위원회 회의

제1회 50주년기념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5일(목) 오후 3시에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협의하고, 행사 세부계획(안)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마련하여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차기회의에서 협의키로 함.
▹ 기본방향
– 50주년 기념식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내실 있게 개최하고, 건축사와 협회의 대국민 홍보에 주력.
▹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 협회 대강당
▹ 엠블럼 및 캐치프라이즈, 건축사 찬가
– 현상공모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엠블럼은 류춘수 위원장이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건축사 찬가는 장양순 위원이 마련키로 하였으며, 캐치프라이즈는 위원 모두 2개씩의 (안)을 마련하여 차기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건축사 및 협회 홍보방안
– 엠블럼 및 캐치프라이즈가 확정되면, 본 협회의 모든 문서에 표기하여 사용하고, 시도건축사회 및 동호회에도 이를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
–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협회 행사는 '협회 창립 50주년' 연계 행사로 개최토록 하고, '협회 창립 50주년'을 서브타이틀로 사용키로 함.
· 例示,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한국건축문화대상』

▹ 부대행사는 창립 기념식(10월 23일)과 관계없이 언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기획하여 '건축사'를 적극 홍보하기로 함
– 금년 11월중 방한예정인 UIA 회장단과 우리 협회장간 특별 대담회(토론회) 개최 방안 등

▹ 기타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주요의견
– 협회 역사 50년을 재조명 하는 영상기록물을 제작하자는 의견
– 창립 50주년을 맞아 건축사를 홍보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시행하여 당선작을 유투브에 올리자는 의견
– 50주년 기념식 행사시 『건축사 찬가』를 합창하자는 의견
– 50주년 기념식 행사시 시도건축사회별 합창단 공연 등 자축행사를 갖자는 의견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자는 의견

· 기타사항 : '건축사'한자 표기 및 '협회 50년사 발간 보급'에 관한 사항
– '건축사'의 한자를 建築士에서 建築師로 변경하는 방안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담당 이사가 이사회 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를 보완하여 전 회원에게 보급하는 예산을 '16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함.

□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9일(월) 오후 12시에 협회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서울지방조달청, 설계용역 평가제도(안)에 대한 우리 협회 의견 검토의 건
–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른 대안으로 제안하고 평가자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용어 정의 및 평가자 선정기준
– 중간설계를 과정평가, 실시설계를 결과평가로 정의
⇒ 기존(안)에서의 중간 및 실시설계가 '과정평가'이고,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대한 평가를 '결과평가'로 제안함.
– 평가자를 자문위원 및 설계감독(조달청 및 수요기관)으로 정하

는 것이 아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의 제10조 및 제11조를 따라 평가자(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대안 제시
⇒ 설계에 대한 평가이므로, 평가자에 건축사를 50%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해야 함 하고, 감리자가 설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가점사용에 관하여는 원하는 타 프로젝트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1년간의 유효기간을 두는 대안을 제시함

▸ 갑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명시 필요
- 일정준수, 비용준수, 성과품완성도 기준, 책임건축사의 역량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일정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 제2호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 검토의 건
-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안제25조의2)의 내용은 벌칙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 적극 반대하며, 관계전문기술자(안제67조)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해당분야전문기술자는 1~3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제안하였고, 지역건축센터 설립(안제87조의2)은 위원의 의견이 상충되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ㅁ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일(수) 오후 2시에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의 건
- 2015년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사업계획서는 위원회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 후 확정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에 관한 건
- 건축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TFT를 팀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함.

· 제3호 :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건
-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장이 평가제도 도입에 관해 회장과 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또한 「공무원 평가제도」 대신 「공무원 행정안전지수 평가」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함.

· 제4호 : 한국건축가협회 반대활동 대처방안에 관한 건
-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이 어려우므로 2015년 협회발전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기타
- 자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달아 주는 질의게시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함.

ㅁ 제2회 50주년기념위원회 회의

제2회 50주년기념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일(수) 오후 3시에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계획(안) 협의 건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한 엠블럼, 캐치프레이즈, 건축사찬가 및 세부 개최계획(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이를 검토, 보완하여 위원회(안)을 결정하기로 함.

1) 엠블럼(안)
▸ 류춘수 위원장이 마련하여 제안한 2가지 엠블럼(안) 중 "대한건축 반세기 50년"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창립 50주년 엠블럼으로 하기로 함.

2) 건축사 찬가(안)
▸ 장양순 위원이 작사·작곡한 「건축사 찬가」를 50주년 기념식 본행사시 부르기로 하고, 곡의 편곡 등에 대해서는 최동규 위원이 전문가를 통해 비용 등을 검토 받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함.
▸ 「건축사 찬가」를 총회 및 협회 각종 행사시에 사용하는 공식 협회(건축사)찬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함.

3) 캐치프레이즈(안)
▸ 위원(장)들이 제안한 <붙임> '캐치프레이즈(안)'을 검토하여 류춘수 위원장이 제안한「건축사는 국민의 삶을 디자인합니다.」를 일반인에게 보다 부드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대신 "당신"으로 수정하자는 유대근 위원의 의견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건축사는 당신의 삶을 디자인 합니다.
(Architects design your life)

4) 50주년 기념식 행사 세부구성(안)
▸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 식전행사로 계획한 「토론회 또는 문화행사」는 '건축을 알만한 저명한 비건축인'을 초청하여「초청 강연회」로 개최키로 하고, 초청강연회 시간도 식전행사 없이 본행사(기념식) 내빈소개 후, 개회사 전에 진행키로 협의함.

- 저명인사 초청대상은 안목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비건축사로서 건축전문가가 아니지만 건축에 대하여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을 섭외키로 함.
- '초청강연회'는 행사당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투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협회를 홍보하는데 활용키로 함.

▸ 「협회 50년 역사 재조명 동영상」제작, 상영
- '협회 50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기념식 행사

에서 상영하기로 하고, 영상 제작은 문화홍보위원회에 협조 요청키로 함.

▸ 유공자 표창

- 유공자 표창은 50주년 기념행사의 취지에 맞게 창립회원중 최고령자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형식적으로 상패만 주지 말고 상을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상품권 등)을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리셉션 시 「축하공연」

- 50주년 기념식 리셉션 행사시 축하공연은 국악단 「소리개」를 초청하여 20~30분 정도 공연을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함.

▸ 기타사항

- 기타 행사 식순 등은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차기회의에 제출하되,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된 행사시간을 가능한 단축되도록 수정, 요청함
- '건축사 찬가' 부를 때 성악가 또는 합창단 1팀을 섭외키로 함.
- 50주년기념행사 사회는 최동규위원이 맡기로 잠정 협의함.

5) 건축사 및 협회 홍보 부대행사

▸ 협회 창립 50주년 UCC 공모전

- 창립 50주년 부대행사로 검토하고 있는 50주년 UCC 공모전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역할」이 일반인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상금이 과다하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협회창립 50주년 기념 '협회장과 UIA 회장단 대담회'

- 협회창립 50주년 기념 '협회장과 UIA 회장단 대담회'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국제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함.

□ 제4회 회장단회의

제4회 회장단 회의가 지난 7월 1일(수) 오후 4시에 협회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건축의 날」포상자 추가 추천의 건
  - 총무이사가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후 회장이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기로 함.
- 제2호 :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의 건
  -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개최시기 및 장소는 인천건축사회의 의견대로 사전 예약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함.

  ※ 인천건축사회 의견 : '16.10~11월중 / 송도 컨벤시아
- 제3호 : 「2017UIA서울세계건축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등의 건
  - 서울시에서 의견요청한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FIKA 내에서 사전 의견조율 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우리 협회 의견은 이근창 국제담당 부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FIKA에 제시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건축사협회 정보화사업단 추진의 건
  - 협회의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정보화사업단을 구성 추진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의 건
  - 건축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가칭)건축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함.
- 제6호 : 이사회 의안 상정의 건
  - 오늘 협의된 2가지 안건을 제7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추가로 '민간부문 감리대가기준 연구' 용역의 건을 보고사항 또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7회 이사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제1회 여성위원회 회의

제1회 여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일(목) 오전 11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여성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협의
  - 논의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내용들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차기회의에서 최종주제를 선정,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키로 함.

□ 제1회 제4법제위원회 회의

제1회 제4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에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제4법제위원회 세미나 안건·추진사업 선정의 건
  - 제4법제위원회의 세미나 주제는 건축사의 현재와 미래, 건축사의 윤리로 선정하고, 건축사사무소 운영개선/ 디자인빌더제도도입 방안 모색/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 및 지원제도 모색/ 공공발주 관련 건축사 업무 및 대가기준 개정안 마련을 추진사업으로 선정함.

알립니다

본지 6월호(제554호) 위원회개최 현황에서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감리제도 개선간담회」('15.5.27)의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협회 정책방향에 관한 건
  - 민간 감리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함.
- 제3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라 대표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 기탁

우리협회는 7월 1일 네팔건축사협회에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 2,357만원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우리협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건축사 회원 등이 2개월 간 펼친 모금 활동으로 조성됐다.
우리협회는 피해지역인 카트만두의 복구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복구 현장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네팔건축사협회에 직접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기술적인 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단체들과 연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과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건축전문가단체로서 국제사회의 재난구호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변호사 3명·회계사 1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우리협회는 6월 이사회에서 협회 자문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협회 회장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과 윤혁경·권병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자문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최상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황용현 회계사(천지회계법인)이다. 4명의 자문위원은 건축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주덕 변호사는 "사고발생시 공무원들이 무조건 건축사만 처벌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상철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협회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충기 회장은 "앞으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국회 보좌관들 대상 '건축문화진흥'세미나 열어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건축을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5일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건축문화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 권병조 부회장과 강사로 류춘수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가, 비서관 및 보좌관은 조남혁 비서관(정성호 국회의원실), 송경민 비서관(민홍철 국회의원실), 전재용 보좌관(신기남 국회의원실), 김주희 비

알립니다

본지 6월호(제554호) 위원회개최 현황에서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감리제도 개선간담회」('15.5.27)의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협회 정책방향에 관한 건
  - 민간 감리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함.
- 제3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라 대표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 기탁

우리협회는 7월 1일 네팔건축사협회에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 2,357만원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우리협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건축사 회원 등이 2개월 간 펼친 모금 활동으로 조성됐다.
우리협회는 피해지역인 카트만두의 복구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복구 현장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네팔건축사협회에 직접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기술적인 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단체들과 연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과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건축전문가단체로서 국제사회의 재난구호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변호사 3명·회계사 1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우리협회는 6월 이사회에서 협회 자문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협회 회장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과 윤혁경·권병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자문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최상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황용현 회계사(천지회계법인)이다. 4명의 자문위원은 건축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주덕 변호사는 "사고발생시 공무원들이 무조건 건축사만 처벌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상철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협회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충기 회장은 "앞으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국회 보좌관들 대상 '건축문화진흥'세미나 열어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건축을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5일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건축문화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 권병조 부회장과 강사로 류춘수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가, 비서관 및 보좌관은 조남혁 비서관(정성호 국회의원실), 송경민 비서관(민홍철 국회의원실), 전재용 보좌관(신기남 국회의원실), 김주희 비

서관(변재일 국회의원실)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소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좌관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하게 됐다.
류 건축사는 강연에서 국내 건축의 아름다움과 건축사 업무의 고유성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류 건축사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한계령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과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 및 고유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건축사 업무에 대해 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민이 건축사의 전문지식이 아닌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 건축사의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건축주를 설득하는 일이 되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전문가의 말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연 후 토론회에서는 협회 관계자들과 보좌관들이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재용 보좌관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의 낮은 위상은 국민은 물론 건축사도 함께 노력해야만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남혁 비서관은 건축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건축을 더 알 수 있도록 본지 배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15기 교육 실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15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목)부터 12월 17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이며, 교육생은 건축사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이와 동등한 자격자이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1일 3시간 16주로 총 48시간이며 매주 18시 30분부터 21시30분까지이다. 교육비는 100만원(협회 정회원 80만원)이며,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접수나 FAX(02-523-2284)로 접수후 교육비를 입금(국민 484201-01-294926 대한건축사협회서울건축사회)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2-587-5752, 706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관, 건립공사 기공식 열려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이 지난 7월 1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회관 건립공사 설계는 지난 2014년 설계경기 공모에 당선된 손숙희 건축사가 맡았다. 올해 3월 건축허가를 받고 10월 말 사용승인 예정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건축사 한마음전진대회'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대구 라온제나호텔(7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5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건축사 한마음전진대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임집행부 출범에 따른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협회발전 방안과, 건축사의 권익 및 생존권확보를 위한 현안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과 협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도 상반기 전국건축사등반대회 열려

지난 6월 13일 2015년도 상반기 전국건축사등반대회가 충북 괴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 동호회 회원 및 가족 3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는 산막이 옛길을 시작으로 등잔봉-한반도전망대-천장봉-삼성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 등산동호회 회원은 1,030명으로, '등산으로 하나 되자'는 목표 하에 국내외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협회 활동 및 건축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 9월 5일 시행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이 지난 6월 3일 발표됐다.
시험일자는 9월 5일(토)이며, 장소는 8월 18일에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8일(수) 9시부터 7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 이며, 합격예정자 발표는 11월 6일이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가 지난 6월 5일 발표됐다. 총 3,952명이 응시한 가운데 18.7%인 739명이 합격예정자이다.

2015년도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

2015년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이 지난 6월 19일 발표됐다.
1차 시험(필기) 일자는 8월 23일(일)이며, 원서접수기간은 7월 1~10일까지이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9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2차 시험(실기)은 12월 6일(일)에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접수페이지(bea.kemc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1차시험이 건축물에너지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이며, 2차는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이다. 건축사는 1차시험에서 건축환경계획 과목이 면제된다.
1차 시험장소는 서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이며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고, 해당 응시장소가 마감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비장소로 임의배정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417~8)에 연락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bea.kemco.or.kr)의 FAQ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건축문화신문 인터넷판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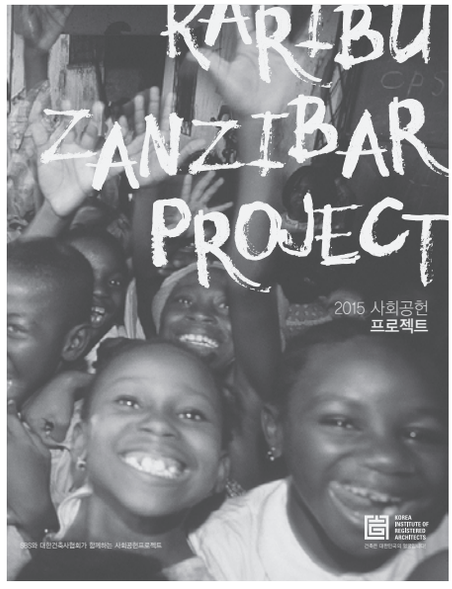
건축계 정론지 건축문화신문의 인터넷판과 모바일 버전이 지난 6월 10일 오픈됐다. 이에 따라 인쇄매체로만 발행되던 건축문화신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ancnews.kr이며, 모바일버전은 m.ancnews.kr이다.

건축문화신문 홈페이지 화면

건축문화신문 모바일 화면

대한건축사협회, '탄자니아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 지원

대한건축사협회가 국제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SBS, 굿네이버스와 함께 '탄자니아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설계(자재협찬 등)를 지원하며, SBS와 굿네이버스는 KOICA 자금 확보, 현지정보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특히 협회는 희망학교 설계를 비롯해 설계이후 건축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건축대상지 현지조사, 설계니즈 파악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사 회원 1인 1만원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여 협회 사업비를 확보하고, 필요 시 협회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억 원(건축비 50%, 교육운영비 50%)을 예상하고 있다.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학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Assistant Professor)

지방중소도시형 도시재생
_이와테현(岩手) "오가르 프로젝트"

Local Small City based Urban Regeneration
_"Ogal Project" in Iwate Prefecture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삭감 등 지자체의 재정난 속에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과 같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이 개발 후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아무리 공공의 개발유도라 하더라도 좀처럼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본에는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민간주도형 공공부동산의 유효활용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550km 떨어진 이와테현(岩手県)시와초(紫波町)[1]에 위치하는「오가르(オガール) 프로젝트」[2]로서, 역앞 10.7ha의 시와초의 유지(有地)를 중심으로 호텔과 배구전용 체육관, 도서관, 카페, 산지직송 마르쉐 등이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 오픈하여, 당초 연간 30만명을 예상했으나 2배 이상인 8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공공조직의 구성

본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철도역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승하객수 확보를 위해 쵸(町)의 신청사와 도서관 건설 등의 공공시설 집적계획을 세웠고, 28억 5천만엔으로 역앞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정체되었으나, 공민(公民)연계에 의한 새로운 공공조직(시와쵸+오가르 시와쵸 주식회사)을 구성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

먼저, 중소지방도시 맞춤형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민연계 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①쵸유지(町有地)에 민간기업의 입지와 진출을 공민연계수법으로 실시하고, ②공공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되 ③민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개발을 실시한다는 목적아래, 시와쵸(공공)와 함께 공민연계를 실시하기 위한 지자체 출자법인조직으로서 2009년 "오가르 시와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섹터(현재, 지자체 출자39%, 민간출자 61%)로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의 기획·운영과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특별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오가르 시와쵸 주식회사와 시와쵸, 민간도시개발기구(MINTO)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0년에 설립한 "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는 전체 건설을 실시하여 건물자산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를 정비 및 관리유지를 담당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공과 민간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실현가능한 개발프레임의 책정

"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는 시와쵸의 토지를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정기차지(定期借地)형식으로 빌리고, 그 상부의 건물 또한, 일부는 공공, 일부는 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에서 구분소유하고, 전체 부동산관리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에서 맡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종래의 공공사업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확보하면 건설 시에 전액을 사용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건설 후 몇 년이 지나면 빈 점포와 낮은 관리 서비스로 "거대하고 황량한 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시작부터 역산방식을 취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가 확정된 세입자를 바탕으로 건물의 규모를 계획하고 건설비용을 산출하였다. 종래의 방식에서는 대략적인 규모를 계획하여 세입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공실 발생 등으로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이 된다. 본 프로젝트는 완공시점에서 점포 입주율 100%를 달성하여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 지역 특화시설 및 공간계획

주요시설로는 ①이와테현 풋볼센터와 ②오가르 프라자, 그리고 ③오가르 베이스가 존재한다. ①이와테현 풋볼센터는 본 프로젝트의 첫 개발로서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개최이후, 각 현마다 축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라 본

1) 시와쵸(紫波町) : 인구 32,836명, 면적 238.98㎢, 인구밀도 137명/㎢(참고, 경북 경주시 198명/㎢)

2) 시와(紫波)중앙역앞 도시정비사업을 일컫는 말인데, 프로젝트명인 오가르는 "성장하는" 을 의미하는 시와쵸(紫波町)지역의 방언「오가르(おがる)」와 프랑스어로 "역"을 의미하는「Gare(가-르)」를 합성한 조어이다.

오가르프라자 외부전경(좌)과 중앙광장(우)(필자촬영)

지구가 채택되어 건설되었는데, 프로구장에서만 사용하는 고급 잔디를 사용하는 등 화려한 경기장이 아닌 내실 있는 경기장을 건설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다.

2012년에 6월에 오픈한 ②오가르 프라자는 연면적 5,800㎡의 2층 건물로, 지역목재를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1층에는 시와쵸 공공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닌 지역 기반산업인 농업에 특화하여 농업관련 서적이 상당부분 집적되어 있고, 농업전문 데이터베이스(Rural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농업과 관련된 토크 이벤트 등 주민과 농가의 커뮤니티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접하여 시와 마르쉐(퍼블릭 마켓)가 존재하여 지역 야채와 축산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상업시설과 함께 이용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7월에 오픈한 ③오가르 베이스는 일본의 최초라 할 수 있는 배구전용 체육관을 설치하여,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세계적인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닥소재를 도입하고 있다. 전지훈련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함께 계획하여 호텔이자 합숙용 기숙사로도 활용가능하다. 이외에도, 2015년에 오픈예정인 시와표 신청사와 오가르 에코(Eco) 주택타운, 그리고 목질바이오 매스보일러를 열원으로 열공급을 실시하는 에너지 스테이션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다목적"이다. 다목적 홀 또는 다목적 광장 등 공공(행정)의 관점에서는 상업적 판매를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을 배치하고자 한다. 하지만, 상업적 활용을 고려하는 민간의 관점이 도입되는 순간, 다목적 시설은 배구전용체육관 또는 축구전용구장으로 변화하고 이 시설들은 특화되고 최고의 바닥재질과 잔디로 이용객들을 겨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이용가치가 향상되고, 특화된 이용객을 기초로 한 상업시설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 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중소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비 또는 재생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공공사업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업 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매니지먼트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고, 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민연계에 의한 개발 및 매니지먼트 수법은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日本建築学会 都市計画委員会 , 地域ガバナンスと都市デザインマネジメント, 都市計画部門研究協議会資料 pp. 130-131, 2014
2. 日経ア-キテクチュア, 産直、カフェ、図書館が一堂に, pp. 52-55, 2012
3. http://www.huffingtonpost.jp/2014/09/10/shiwa_n_5795002.html(2015.6.9 접속)
4. 오가르 프로젝트 공식 사이트(http://www.ogal-shiwa.com/, http://ogal-base.com/, http://www.ogal-plaza.com/)

공공도서관 및 마르쉐 등 각종시설(필자촬영)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건축사 David Adjaye - 집.

Architect, David Adjaye - House

지난 5월, 연휴를 이용하여 집에 남아 있는 이삿짐을 정리하러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쾰른에 올라갔다. 오랜 기간 동안 모아왔던 책을 정리할 겸 이리 저리 옮겨 박스에 담아 내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이 손 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먼 길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 안에서 펼쳐지는 한 건축사의 세계 안에 빠져 밤새 앉아 있게 되었다.

이 아프리카 가나출신의 영국 건축사는 런던에서 근 십년동안 활동하며 다양한 주거설계에 참여를 하였다. 이 설계들은 대부분 기존 밀도가 높은 런던 시가지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집이나, 혹은 이런 집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작은 공간을 찾아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집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촉매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미술적인 감각을 최대한 쏟아내어, 미술과 건축사이의 경계 안에서 그의 고민을 덜어내고자 노력했다. 그의 작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섬세함은 그의 설계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에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단순히 그의 건축세계가 미술 작가 Tim Noble, Sue Webster 혹은 Jürgen Teller의 단순 공간작업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러 미술작가와 협업을 통해, 건축과 미술 사이의 접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한다. 200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미술작가 Chris Ofili와 함께 진행한 영국관 전시 디자인은 그의 이러한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다. 원색적인 색감을 이용한 대조적인 구성은 당시, 방문객으로 하여금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인 고민은, 매 설계마다 한결 같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혹시라도 그의 생각과 고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지어내는 집도 또한 단순한 그의 개인적인 미술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실용적인 공간으로 사는 이로 하여금 필요에 의한 만족이 꼭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주거 설계안에서 제안해내는 개념이란, 단순한 직감이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그의 성장배경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다. 그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그의 이력을 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 이야기 하기를,

"가톨릭 신자로서 무슬림 국가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으로서 북런던 지역에서 성장한 나는 이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엮어나가야 했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그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주거형태, 양식 그리고 재료, 아프리카, 일본 그리고 중동 아시아지역의 건축 형태와 전통, 즉 어디서든지 그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매번 전형화 시키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토대로 작업하고 모아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들은 그의 건축 세계의 하나의 전형적인 레퍼토리가 되었다. (전시설계 / Asymmetric Chamber in the CUBE Gallery)

asymmetric chamber project _ Cube 갤러리 출처 Adjaye Associates

Electra House 모델사진 1

Electra House 모델사진 2

Electra House 전면사진

현대의 미학에 대응하는 그의 설계는 확실히 안과 밖으로 나뉘어진다. Electra House나 Dirty House에 보여지는 외부 입면과 내부 공간의 물리적인 차이는 다양한 건축적인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된다. 어두운 색의 전면부와 측면부 입면은 집을 전체적으로 무겁게 보이게 하지만, 그 전체의 구조는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재료들의 이음새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모듈을 형성하고 이 모듈안에서 외부와 내부의 공간구성이 전혀 다름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집은 외부의 거칠고 투박한 느낌과는 달리 내부에는 단순한 빛과 유리를 이용한 밝은 공간을 제시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설계의 다양성은 알류미늄 패널, 슬레이트, 메탈, 유리, 콘트리트 등 그가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안에서 연결된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기술적인 정교함은 그의 손에서 시작된다. 그의 공간에 대한 스케치는 실험적이지만 본질을 놓치거나 절대 임시적이지 않다. 즉, 그의 기술은 절대 화려하거나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단순한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바로 재료에 정교함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사실 특정층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평범한 집에서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집에는 이러한 미학이 큰 의미를 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런 테마와 관련되어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을 위한 집들도 지은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사회 중산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거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대한 중산층을 담아낼 수 있는 주거블럭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Sugar Hill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단순히 주거라는 단어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왜 우리가 저예산 주거 프로젝트를 단순히 흥미로운 실험으로 생각하고 건축사들의 상상에 맡기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이러한 실험은 사실 주거 계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섞여서 제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안에서 하나의 깊은 밀도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중산층의 환경에서 혹시 적당한 밀도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훌륭한 상업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해 단순한 상업지구만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절대 성공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Sugar Hill 프로젝트의 훌륭한 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안에 박물관, 탁아소, 옥상정원이나 텃밭, 미술관련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작동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렸을 적 경험들, 즉 유년기 시절 제3세계 외교관의 아들로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고 난 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정교한 예술성이 그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가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려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집을 만들어내는 완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건축사 David Adjaye는 가나 출신의 부모님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런던의 다양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을 한 뒤, 1994년 William Russell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만든 후 전시디자인과 인테리어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2000년 개인적인 독립을 한 후, 현재 30명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런던, 뉴욕 그리고 베를린에 가지고 있다.

Sugar Hill Project _ 사진 Robert Wright

베네치아 비엔날레 영국관 (2003) _ Chris Ofili 출처 Adjaye Associate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7월초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33	25.5%	979	18	0	997	928	110	34	16	11	1,099	36	2,132
부산	813	8.5%	568	6	1	575	140	27	6	2	1	176	4	755
대구	740	7.8%	567	13	5	585	76	10	5	3	0	94	9	688
인천	394	4.1%	303	2	0	305	61	7	1	0	0	69	9	383
광주	318	3.3%	229	1	0	230	58	5	1	2	1	67	3	300
대전	360	3.8%	270	5	0	275	36	7	3	1	1	48	3	326
울산	246	2.6%	208	4	0	212	19	3	0	1	0	23	1	236
세종	56	0.6%	32	0	0	32	18	3	0	0	0	21	0	53
경기	1,300	13.6%	940	2	0	942	271	14	4	2	1	292	25	1,259
강원	254	2.7%	210	2	0	212	31	2	0	1	0	34	1	247
충북	330	3.5%	249	2	0	251	50	2	2	2	1	57	1	309
충남	372	3.9%	296	2	0	298	54	7	0	1	0	62	0	360
전북	335	3.5%	280	4	0	284	32	6	0	0	0	38	3	325
전남	262	2.7%	219	0	0	219	32	4	0	0	0	36	3	258
경북	537	5.6%	468	5	1	474	42	5	0	0	0	47	4	525
경남	603	6.3%	541	4	0	545	48	3	0	0	0	51	0	596
제주	183	1.9%	148	0	0	148	26	3	0	0	0	29	3	180
합 계	9,536	100%	6,507	70	7	6,584	1,922	218	56	31	16	2,243	105	8,932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7월초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3,103	5,019
서 울	4,156	3,214
부 산	796	234
대 구	701	145
인 천	388	15
광 주	317	123
대 전	370	94
울 산	240	67
경 기	1,482	255
강 원	264	38
충 북	330	108
충 남	339	92
전 북	344	63
전 남	277	108
경 북	512	70
경 남	617	122
제 주	185	89
세 종	56	27
기 타[주]	1,729	155
비 고	회원 : 9,440 / 비회원 : 3,663	대학 : 4,489 / 대학원 : 530

주) 위의 통계의 기타는 건축사등록시 '근무처 없음'을 선택한 건축사임에 따라, 실제 등록현황과 상이함.